



제2918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LG, 미래 먹거리 '클린테크'에 2兆 투자... 10



10년 끈 정부-론스타 6조 소송 연내 결론 18



韓美日 정상회담 "세계평화 중심축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드리드=뉴시스

코스피(29일)	2377.99 (-44.10P)	코스닥	762.35 (-7.16P)
환율(달러당 원화)	1299.00 (+15.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552% (변동없음)

소비 급랭, 물가 활개 기업 체감경기는 '뚝'

S 공포 현실화

기대인플레이션을 4% 육박
BSI 전망치 18개월來 최저
유가 급등에 경상수지 적자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에 바짝 다가서며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교역조건은 14개월째 악화일로다. 기업 체감경기 전망치 역시 18개월 만에 최저치다.

▶관련기사 3면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수입금액지수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급등했다. 18개월 연속 상승이다. 수출금액지수 역시 상승했지만, 수입가격(24.3%)이 수출가격(11.1%)보다 더 오르면서 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5.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하락했다. 14개월째 내림세다.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국민 실질소득이 줄고 경상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이미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흔들리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치솟고 있다. 한은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0.6%포인트 상승 폭은 역대 최대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주관적 전망이지만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지표다.

물가 상승 우려가 반영되면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96.4)는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지난달 상승했던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아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 기업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2.6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91.7)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에 미국 소비가 흔들리면서 월가에서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소비자표부진에 최근 반등을 노리던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8일(현지시각) 일제히 급락했다. 치솟는 유가에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 수요도 주춤하고 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글로벌 국가들의 성장률 예상치는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유럽으로 경제영토 넓히는 尹... 中과는 선긋기

나토서 원전·방산·반도체 세일즈
경제 의존도 높은 中리스크 대비

윤석열 정부가 경제지도를 유럽으로 확장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원전, 방산,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유럽을 대안 시장으로 키워 '중국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최상목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각)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

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년간 누려 온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중국 대안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유럽"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유럽은 국내총생산(GDP)이 17조 달러 규모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며 "이곳에서 원전과 방산 같은 새로운 수출시장이 열리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트렌드를 선도하고 우주산업과 환경, 안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미래산업을 준비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과 기술협력 파트너로, 소재·장비는 유럽이 장점이 있고 우리는 제조·장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럽이 수출은 3위지만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1위로, 투자로만 보면 유럽이 중국보다 앞선다"며 "기업 관련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방산 협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우주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산업 협력 등을 모색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윤호 기자 uknow@

지역가입자 65%, 전보료 月 3.6만원 덜 낸다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561만 가구(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인하된다.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부과 체계는 9월 26일 고지되는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 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 9500원으로 오르지만, 저소득 구간에서 최고 20%에 달했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은행

공부가 고민인 지호
진로를 상담 받고 싶은 하늘이
재능을 찾고 싶은 소희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
사라지거나 묻혀있지 않도록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농촌지역 학생들의 꿈
더 크게 키워겠습니다

든든한 민족은행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농촌지역 학생들의 잠재력과 꿈을 키우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NH농협은행은 농촌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학습지원, 진로상담, 재능기부) | 학습 프로그램(진로체험, 대학탐방)

‘묻지마 청약’ 사라진 분양시장... 규제 유무따라 ‘흥행 희비’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장 ‘한파’ 의정부 등 규제지역 미달 속출 오늘 주정심 결과 분수령 될듯

전국 청약 시장에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린다. 수도권이라도 분양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어김없이 청약 낙제점을 받아내고 있다. 반면 지방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중도금 이자 지원 등 가격 이점이 있는 곳은 연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취를 감춘 ‘묻지마 청약’의 빈자리를 ‘간간한 청약’이 대신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지방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청약 낙제점이 이어지는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하반기 청약 시장 반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북 구미시에서 분양한 ‘원호자이 더 포레’는 458가구 모집에 2만5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3.7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과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을 내걸어 실수요자의 선택

서울 분양 아파트 주요 단지 가점 (단위: 점)

단지명	전용면적	최저가점
북서울자이폴라리스	38.92㎡	54
한화 포레나 미아	80.85㎡	34
창동다우아트리체	58.13㎡	32
서울대입구역더하이브센트럴	59.74㎡	55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	39.11㎡	40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2단지)	45.98㎡	43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	49.1㎡	59

* 출처: 리얼투데이

6월 주요 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

단지명	위치	평균 청약 경쟁률	날짜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경북 구미시	43.7대 1	28일
힐스테이트 탐석	경기 의정부시	2.1대 1	28일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경기 고양시	172.2대 1	24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부 B4 1단지	경기 양주시	미달	28일

* 평균 청약 경쟁률: 1순위 일반공급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급등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는 4% 중반을 훌쩍 넘는다. 원호자이 더 포레 전용면적 84㎡형 분양가는 4억23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중도금 60%를 모두 대출받으면 2억 5380만 원 규모다. 연이율 4.5%를 적용하면 매년 이자만 1142만 원이다. 월 9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도 좋은 데다 구미 내 신축 공급도 귀해 1순위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본다”며 “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바로 옆 구미

로 아파트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 거들었다”고 했다.

가격 이점이 확실한 단지의 청약 흥행은 최근 시장에서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24일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3억 원 이상 저렴한 6억 원대에 분양됐다. 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10월 입주 때 전금을 치러야 하는 조건임에도 평균 1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이나 규

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실수요자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경기 의정부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탐석’과 양주시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부 B-1 4블럭’은 각각 평균 경쟁률 2.1대 1과 미달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강북구에서 분양한 ‘한화포레나 미아’는 139가구가 정당계약 이후 무순위 청약(줍줍)을 진행했지만, 고분양가 부담으로 계약 포기 물량이 속출했다. 강북구에서 분양 중인 ‘칸타빌 수유판리스’는 무순위 청약에도 완판에 실패해 아예 10%가량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공급에 집값 약세가 계속되지만,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구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6827가구로 전월 6572가구 대비 255가구(3.9%) 늘었다. 지난해 4월 미분양 건수가 89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새 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국 청약 시장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30일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은 청약은 물론 대출과 세금 규제가 더해져 부동산 경기 하방압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규제다. 현재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규제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규제지역 해제 시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되는 만큼 하반기 청약 시장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박민용 기자 pmw7001@

새만금공항에 8077억 투입 2029년부터 비행기 띄운다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조감도)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 매립 용지에 신설되며, 총면적 340만3054㎡ 규모다.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개발된다. 총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고 이달 22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

쳐 2029년에 개항한다.

국토부는 공항이 개항하면 앞서 완공된 항만·철도와 함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58년 기준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으로 예상된다.

개항에 맞춰 군산공항에서 운영 중인 민항노선을 이전한 후 군산공항에 남게 되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제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공법 적용 등을 통한 친환경·탄소중립 공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15개 공항(국제공항 8, 국내공항 7개)이 운영 중이고, 6개 공항(울릉공항, 흑산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공항, 대구공항 이전, 가덕도신공항)이 건설을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이들 공항이 모두 완공되면 새만금공항과 합쳐지는 군산공항을 빼도 20개에 달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韓 “물가 통제 안 한다”

秋 “임금인상 자제하라”

인플레가 서민 탓? ... 尹정부의 이중잣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인세·보유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에는 자제를 요구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의 고통을 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에 달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에 맞춰 대기업을 필두로 기업들이 잇따라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더 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우려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시장 논리를 볼 때 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포함하면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기대 인플레이션

법인·재산세 ‘부자감세’ 논란 속 노동계 “정부가 임금 개입” 비판

을 높여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고물가 기초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처럼 대기업, 부유층에 세금 혜택을 주고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 잣대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사원 김모 씨는 “대기업·부유층을 위

한 감세로 물가를 가중시켜 놓고 정작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임금 인상을 막아 고물가 고통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비판 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사합의 사안인 임금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추 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 대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부총리의 발언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이 나온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추경호 경제부의 논지와는 상반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건강보험 체계 9월 개편

▶1면서 계속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 부과 대상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약 65%인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낮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인하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다. 최저보험료가 다소 오르지 않지만,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 정

률세 도입으로 모두 상쇄된다. 보험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재산 보험료 축소다. 기본공제가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과표에 근접하면서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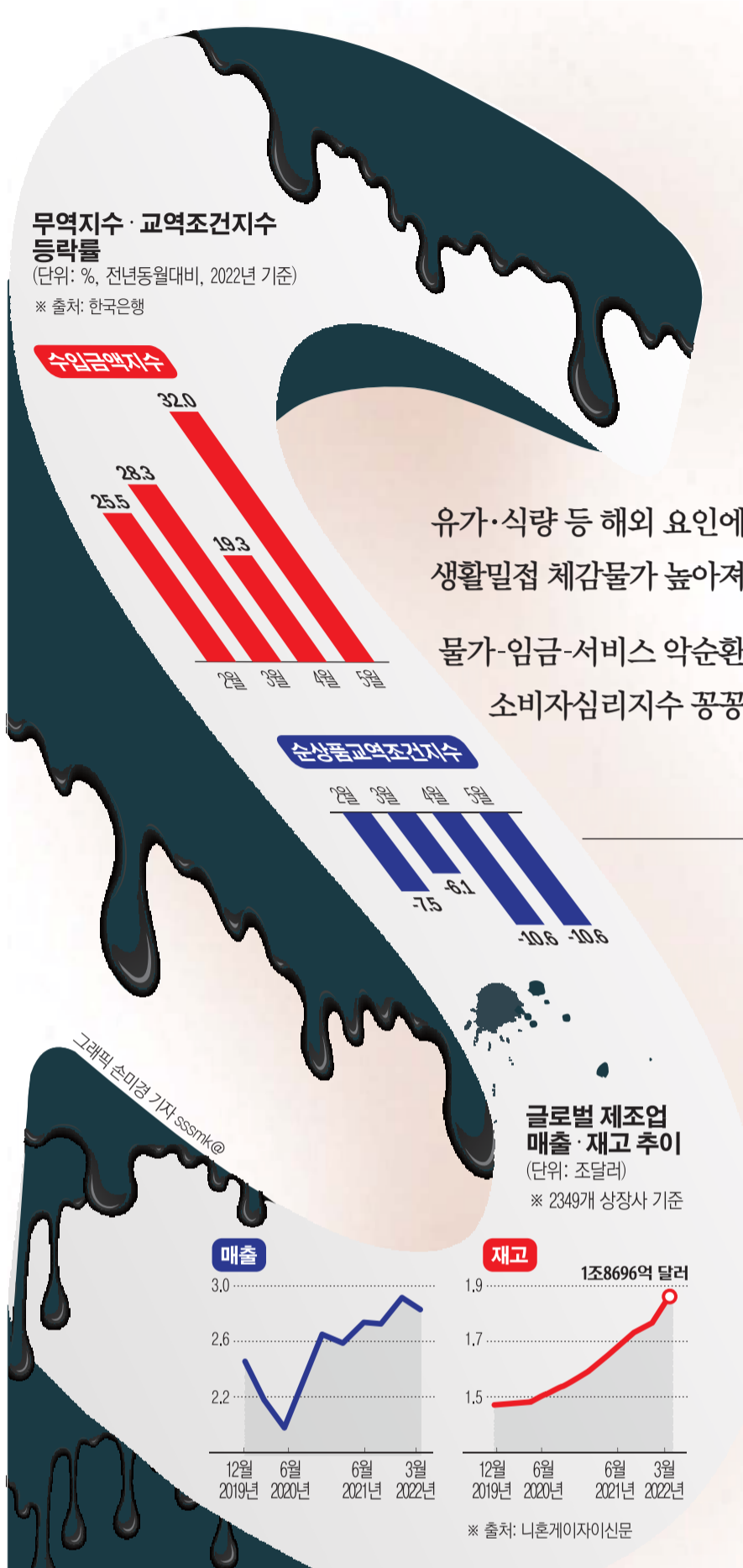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

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전체 보수 외 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추가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다. 가령, 소득 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연 2100만 원을 버는 직장가입자라면, 추가 소득에 대한 월 보험료는 2000만 원 초과분 100만 원의 6.99%를 12개월로 나눈 5820원이 된다.



高물가·소비 급랭·교역 악화...“경기 총제적 난국”



기대인플레 0.6%P↑ 역대 최대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 10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금액은 1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악재가 쌓이면서 다음 달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6%포인트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2.0%를 기록한 후 1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해왔다. 4월 3.1%로 3%를 넘었고, 5월 3.3%에 이어 6월 3.9%를 찍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유가, 국제 식량 가격 상승 등 해외 요

인에다 외식비를 비롯한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생활밀접 체감 물가가 높은 점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임금 인상 부담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국내 외 물가 상승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얼어붙었다. 96.4로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금리 인상, 물가 상승세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았다. 5월과 비교해 현재생활형편(-2포인트), 생활형편전망(-5포인트), 가

계수입전망(-1포인트), 소비지출전망(-2포인트), 향후경기전망(-3포인트) 등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하락했다.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교역조건 역시 악화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5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에 따르면 올해 5월 수입금액지수는 176.5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2020년 12월(2.9%) 이후 18개월 연속 상승이며, 오름폭(32%)도 4월(19.4%)보다 높았다.

품목별로는 광산물 수입금액지수 상승률이 75.7%에 이르렀고, 공산물 중 제1차 금속제품(42.1%)과 석탄 및 석유제품(40.6%), 화학제품(37.1%) 등도 크게 올랐다.

전반적으로 수출가격(11.1%)보다 수입가격(24.3%)이 더 크게 오르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5.33으로 1년 전보다 10.6% 떨어졌다. 14개월 연속 내림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능할 수 있는 지표다. 송영록 기자 syr@

글로벌 제조업 재고 1.87억弗 10년來 최대

2349개 상장사...증가율 5.5% 물가쑈 소비 둔화 '리스크 가중'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재고는 과잉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소비는 둔화하면서 경기침체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을 인용해 글로벌 2349개 제조업 상장사들이 보유한 재고가 3월 말 1조8696억 달러(약 2416조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약 97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증가분과 절대액 모두 10년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증가율도 5.5%를 기록해 미·중 무역마찰 우려가 컸던 2018년 3월(6.1%) 이후 가장 높았다.

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는 공급망 차질로 인한 제품 이동의 어려움과 품귀 현상에 대비한 의도적인 비축,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경제 재개를 기대한 재고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재고는 제조업 12개 업종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기와 자동차, 기계 등 3업종 재고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국 달러 기준 재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약 44억 달러(13%) 증가한 3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닛케이이 설명했다. 1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와 거의 같았지만, 공급망 혼란에 따른 여파로 원자재를 쌓아 놓은 게 주원인이 됐다.

같은 기간 미국 포드는 매출이 8% 줄었지만, 재고는 21% 증가했고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재고가 9% 늘었다. 공급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량을 늘린 것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품 출하가 멈춘 것이 영향을 줬다.

PC와 가전 등 일부 제품에선 과잉재고 우려도 나온다. 재고가 며칠 만에 자리바

꿈하는지를 보여주는 재고 회전일수는 1분기 81.1일로, 직전 분기보다 3.6일 길어졌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0년 1~3분기를 제외하면 이 역시 10년 만에 가장 기간이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재고에 느린 소비가 더해지면서 경기침체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서 수요 회복하면서 재고를 쌓기 시작한 기업들은 이제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라는 새 문제에 직면했다.

실제로 1분기 세계 제조업 매출은 전 분기보다 3% 줄었다. 미국·유럽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경기 위축 판단 기준선인 50에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 PMI는 5월까지 3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닛케이이 "이미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줄면서 가전 업종 등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며 "기업이 재고 조정으로 돌아서면 생산 활동을 줄여 경기를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기업 경기전망 92.6...1년반 만에 최저

제조업 4개월 연속 부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경기전망이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9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7월 BSI 전망치가 92.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91.7)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BSI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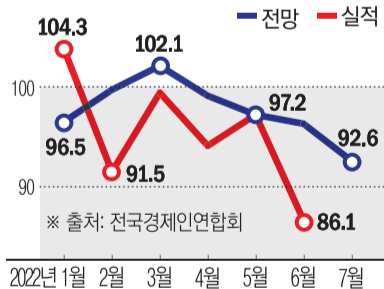
전경련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현상이 국내외 소비와 기업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어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개월 연속 제조업(90.4)과 비제조업(95.1)이 동시에 부진했다. 제조업은 4월(94.8)부터 4개월 연속 기준치 100 이하의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전경련은 제조업의 업황 부진이 비제조업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0이상: 낙관, 100이하: 비관)



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고용(103.9)이 유일하게 긍정적 전망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재고(103.6), 투자(99.7), 수출(99.0), 자금사정(97.1), 채산성(95.8), 내수(95.8)는 부정적 전망을 나타냈다.

수출(99.0)과 내수(95.8)의 경우 주요기관의 세계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위축 우려로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경기전망이 심화하면서 작년 4월(99.4)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美소비자 기대지수 바닥...월가 “장기침체” 경고

기대지수 66.4...9년여 만에 최저 비관 전망에 뉴욕증시 2%대 급락

인플레이션에 미국 소비가 흔들리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급부상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일제히 2%대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투자심리도 같이 같이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6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98.7을 기록했다. 전월(103.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자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6개월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전월의 73.7에서 66.4로 크게 떨어져 201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휘발유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와 고

용시장, 소득 측면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비관 모드'가 더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여름철 '보복 여행'도 치솟는 유가에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자동차로 휴가를 떠날 계획인 미국인은 이달 전체의 22.7%까지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 단위 이동제한이 있던 2020년 여름을 제외하면 4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 심리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월가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 방송에 나와 "공급망 문제가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경기침체에 있다"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월 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구

조적으로 장기적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60% 정도로 점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대표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내부적으로 올해 소비자금(소매금융) 손실이 12억 달러(약 1조55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이 은행이 예상했던 손실액 10억 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악화로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경우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올해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오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대통령실 “對中 수출 호황 끝나”... 대안으로 유럽 공략

尹정부, 유럽 공들이기 배경
“우크라이나전쟁에 틈새시장 열릴것”
중국 리스크 줄이기 요구 충족
경제보복에도 무게추 이동 의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무게추가 미국과 유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서방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고, 유럽시장을 획기적으로 키워 중국 의존도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프레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미국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폴란드·체코 등 원전 수출과 폴란드·덴마크와의 방산 협력, 네덜란드·영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덴마크와의 재생에너지 상호투자, 프랑스와의 우주산업 협력을 꼽았다.

이는 나토의 ‘중국 견제’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중국에 실망을 표했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중국이 제기하는 다면적 도전을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토 회의에는 ‘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마드리드/연합뉴스

상하는 중국’ 세션이 따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대사와 만나 ‘동반자’라고 강조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직접적 위협이 오자(유럽) 나라들마다 입장이 갈리는 과도기로, 우리에겐 틈새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 공



김건희(왼쪽) 여사와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스페인국왕 주최 만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관에서 가진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섭섭해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와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려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더라도 이방향을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중국과 저희 분업체계는 원숙한 정도로 왔

다”고 자신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국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중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회 최남석 전복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전망처럼 중국이 선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통화에서 “나토 회의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 중국이 통상보복까지 감행하기는 어렵고, 비판 강도가 높은 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토 회의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건 당장 쥐는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미·유럽과의 협력 강화로 얻는 실익과 함께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일 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손상시키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윤호 기자 uknow@

尹·기시다 “한일 관계 발전 위해 노력하자” 한미일 정상회담...북핵·미사일 공조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만났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9일 환영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두 정상의 대화는 3~4분 정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

尹 “현안 풀자” 기시다 “고맙다”
네덜란드와 “반도체·원전 협력”
나토 사무총장,尹과 면담 연기
예정시간 이후 알려 결례 논란

하자, 기시다 총리는 “감사하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안정적

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엔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면담은 연기됐다. 윤 대통

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두 번째 공식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일정이 연기된 원인은 핀란드다.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예정된 윤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연기됐다”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시작된 핀란드와 스웨덴, 튀르키예, 나토 사무총장 간의 4자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 시간이 회담 시간 뒤라 갑작스럽게 일정 연기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연기된 이유인 4자 회담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진통에 따른 것이다. 나토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가입이 이뤄지는데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윤호 기자 uknow@

서방사회 vs 러·중 신냉전 그림자 중, 안보리서 “亞太판 나토’ 반대”

G7,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에 반대

서방사회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신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과 도전으로 규정하고 제재 고삐를 당겼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경제 움직임에 강력 비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세계 안보 지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돼 서방과 ‘반미’ 연합으로 급격히 갈라지고 있다. 기폭이나 힘겨운 세계 경제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부당한 침략전쟁이라며 비난하고 러시아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은 원유에 이어 가스 가격 상한제 논의에도 물꼬를 텄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는 러시아 가스”라며 “가스관을 통하기 때문에 원유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말했다.

G7은 공동성명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도 겨냥했다.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의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 대상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전략개념’ 수정을 예고하면서 러시아·중국에 견

제구를 날렸다.

러시아와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옛 소련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타지키스탄을 방문했고 29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를 방문해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미얀마를 방문,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섰다. 또 장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나토의 전략 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군사 동맹을 빙자해 ‘아태판 나토’를 만드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며 날을 세웠다.

서방과 러·중의 극한 대립으로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하면서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당장 에너지 시장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제프리 스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최대 걸림돌 해결

튀르키예, 지지로 입장 선회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최대 걸림돌을 넘었다. 튀르키예(터키)가 가입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지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앞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랜 군사비동맹 입장을 뒤집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두 국가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노동당(PKK)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PKK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왼쪽) 튀르키예 대통령이 막달레나 안데르손(오른쪽)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

와 관련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는 약속을 받아들여 후 지지로 돌아섰다.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접음에 따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개 회원국 승인과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재명>

“명 나오면 당 쪼개져” “명분 없는 명 때리기”

민주 전대 출마 놓고 대립 격화 “총선 공천권 누가 휘두르나 싸움” 정가에선 이재명 출마 기정사실화 친명 “분당 가능성 0.01% 안 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유력 주자였던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초에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반명(반이재명)’ 진영에서는 ‘분열론’을 던지며 연일 이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3선의 김민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분열하거나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영선 전 장관도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 포럼에서 이 의원 출마와 관련해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대선과 지방선거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친낙계(친이낙연계)’ 중진 의원도 “자기중심적인 이 의원의 특징상 대표가 되면 분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정 반대 목소리를 낸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당 가능성은) 0.01%도 없다. 정치적 자멸 행위”라고 일축했다. 한 범친명계 의원도 “(분당은) 말도 안 된다”

며 “이 의원은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평소에는 굉장히 말수도 없고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대표가 된다고 해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파색이 얽은 한 초선 의원은 “이 의원 말고는 민주당의 얼굴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때리기’는 명분이 없다”며 “지금 분당 등 위기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얼마 안 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가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반명 측 의원들은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돌리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한 번 모여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친문(친문재인) 중진들과 ‘7080’ 의원들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이들은 ‘물귀신 작전’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유력 주자들이 동시에 물러나고 새로운 주자에게 힘을 신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출마하면 의미가 없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뽑는 집단지도체제로 이 의원을 견제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혔지만 현실적으로 지도체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누가 휘두르느냐의 싸움”이라며 “반명계에서는 이 의원에 대항할 만한 인물에게 힘을 응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될 속삭이나 민주당 김민석(오른쪽)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의원은 전날 이재명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당이 분열하거나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하나 국민의힘 “날치기 개헌 시동”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의장단 단독 선출을 공식화했다.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며 “의장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법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부터 충실히 해 나갈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위해 내일(30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임시국회 소집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의 결단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핀행이 영향을 미쳤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상태다. 신 대

변인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독 원 구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필리핀 특사로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농단이라고 운운하며 뭉치를 부리더니 날치기 개헌의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공고를 낸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과의 불화 조장”

자신 비판한 김정재 지역구 방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달라’고 통보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누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계속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발언이고, 대통령실에서 이것과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먼저 한 적 없다. 매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에도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 하고 “언제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혼선을 계속 가져올지 의문”이라며 “오늘(기사에) 등장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누구였을 까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이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참배한 데 이어 포항을 찾았다. 포항행에 대해 일각선 최근 혁신위원회를 비판한 김정재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일정이 아니다”라며 “김영식 의원실에 예전부터 원자력 관련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만희 기자 nancho0907@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대한민국을 위해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한국전력과 함께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한전과 함께해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 방법 5가지

- 여름철 냉방은 26~28도로!**
냉방 온도 1°C 조절시 연간 11kg의 CO₂ 감소
- 가전제품 대기전력은 차단하고**
셋톱박스 전원을 끄면 한시간에 대기전력 12.3W 절감
- 에어컨 실외기는 그늘!**
햇빛 차단 시 효율 상승 및 약 7%의 에너지 절약
- 에어컨, 선풍기는 동시에!**
에어컨 단독 사용 대비 전기 사용량 2~30% 절감
-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고!**
냉장실 내용량 10% 감소시 전기 소비 1.8kWh/년 감소

2020 주요국 전력소비 원단위

(한국 100기준)

전력소비 원단위: 실질 GDP 1달러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량, 높을수록 효율성이 낮음	
덴마크	0.088 (25)
일본	0.234 (65)
한국	0.359 (100)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Highlights 2021 (IEA), World Bank Database (2022) (단위: kWh/\$)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미래 세대를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동참해주세요!

“임금 안 맞아 일 못 한대요”... 제조·운수 ‘구인난’ 허덕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 미충원율: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채용계획인원: 2022년 2월~3분기(6개월), 전년 동기 대비
※ 인력부족률: 2022년 4월 1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율
1303천명	1128천명	13.4%
+237천명 상승↑	+165천명 상승↑	+3.8%포인트 상승↑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인원
642천명	3.6%	650천명
+227천명 상승↑	+1.2%포인트 상승↑	+219천명 상승↑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채용 확대에도 미충원율 3.8%P↑ 사업체 부족인원 64.2만명 달해

올해 상반기 사업체들의 채용인원이 구인인원에 17만4000명 모자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 수준에 돌입하면서 채용수요가 회복됐지만, 정작 일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

인원인이 130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3만7000명(22.3%)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채용인원은 112만8000명으로 16만5000명(17.2%)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충원 인원은 17만4000명으로 7만2000명 늘고,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율은 13.4%로 3.8%포인트(P) 올랐다. 산업별 미충원 인원은 제조업(5만8000명), 운수·창고업(2만2000명), 도·소매업(1만8000명)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운전·운송직(2만5000명), 경영·행정·사무직(1만9000명), 제조 단순직(1만5000명), 영업·판매직(1만4000명) 순으로 미충원 인원이 많았다. 전

년 동월 대비로는 경영·행정·사무직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충원율은 산업별로 운수·창고업(47.9%), 직종별로 운전·운송직(4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율이 14.7%로 4.2%P 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5.6%로 1.1% 증가에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내국인 수급에, 300인 이상 사업체는 외국인 수급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음' 때문(23.7%)이 가장 많았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9.0%)' 이 뒤를 이었다.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음' 때문,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사업체의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64만2000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보다 22만7000명(54.6%)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65만명으로 21만9000명(50.8%) 증가했다. 부족인원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순으로 많았다. 이들 산업은 부족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산업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이라니” 韓, 임기 남은 홍장표에 사퇴압박

〈한덕수 국무총리〉

공정위원장에 檢 출신 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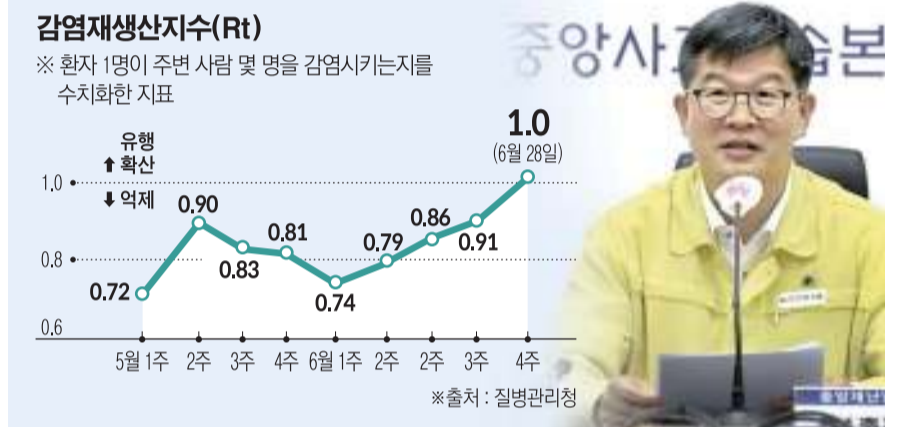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거취에 대해 “바뀌어야지”라며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념회에서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늦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검찰 출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공정위 인사는 해보니까 후보자가 없는 때는 없다.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며 “정통 행정부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정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퍼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한때 이 나라를 리드하셨던 리더”라며 공정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수형생활이나 그런 걸 보면서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코로나 재유행? ... 20일새 확진자 ‘도로 1만명’

감염재생산지수 '1' 증가세 전환 “정체국면 진입, 추이는 살펴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했다.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도 1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건 9일(1만2161명) 이후 20일 만이다. 신규 사망자와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각각 7명, 59명에 머물렀다. 다만,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이어진다면 사망자와 위·중증환자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미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BA.4', 'BA.5'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여름 이동량의 증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이라고 강조했다. 'BA.4', 'BA.5'는 오미크론(BA.2)의 하위 변이다. 다만, 현 상황을 '재유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추이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소폭의 증감을 보일 것인지, 다시 증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조치 재강화에 대해선 “현재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 의료체계의 여력 등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

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이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체코, 원전·수소협력 MOU 체결

전력·에너지 정책 연구 공동 수행

한국과 체코가 원전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8일(현지 시간) 한국 9개 기업·기관과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이다. 체코 원전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요점 시퀀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시퀀다 장관과의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한국의 원전 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경제성, 공기준수, 안전성 등을 보장할 파트너는 한국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산업을 예로 들었다. 산업부는 체코 측도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퀀다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에 한국이 참여해준 것에 감사를 건네며 한국이 최근 투자를 확대한 소형모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한수원 CRI - 체코공대(CTU) 간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있다. 연합뉴스

듈원전(SMR)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와 세계시장 공동진출을 함께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운송, 활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장관의 원전 세일즈로 원전과 수소 분야에서 총 10개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장관과 체코 산업부 차관, 두산에너지 빌리티와 한전KPS, 현대차 등 양국 기업·기관이 참석한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 후 양측은 체코 원전사업 공동참여,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가스공 “대구에 車 1300대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 주도”

대구 혁신도시, 친환경 거점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혁신도시에 연간 승용차 1300대 수용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 2030년까지 총 152개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 중인 가스공사는 수소생산기지 건설과 함께 수소 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시대를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12일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들어선 이번 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됐다. 시간당 수소 승용차 10대 또는 수소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다. 1년으로 따지면 승용차 1300대 충전, 연간 200톤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대구에는 북구와 달서구에만 수소충전소가 있었지만, 이번에 동구에 생겨 관내 충전 인프라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충전소는 H2U라는 브랜드네임을 갖고 대표 에너지 체험 공간으로 구축된다. 특히 충전소 부지 내에 28평 규모로 마련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된 수소 홍보관에서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소 에너지 관공객의 이해를 돕는다.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수소 사업을 실시간 홍보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한다. 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15개의 수소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창원과 평택, 광주 등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완료했다. 창원에 있는 수소생산기지는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통해 하

루 약 1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다. 수소 승용차 2만 5000대 이상에 공급할 수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수소생산기지도 같은 방식으로 4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생산기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수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에너지플러스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스마트한 소비자의 슬기로운 주유생활 에너지플러스 앱!

바로주유 바로혜택 EVENT

- + 5만원 이상 바로주유 할 때마다 주유 할인쿠폰 1,000원 제공

*주유실적은 현장 할인, 쿠폰, 포인트 사용내역을 제외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해당됩니다.
*쿠폰 발급은 3개월 기준 최대 10회(누적금액 50만원)까지 발급됩니다.

친구초대 EVENT

- + 초대받은 친구가 바로주유 등록하면, 친구도 나도 함께 할인 (주유/세차할인 3,000원 중 택1)

*초대코드 등록은 최초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중복 가입 판단시 지급 불가)
*초대받은 친구가 초대코드를 입력하고 바로주유 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우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명 제한)

스탬프 EVENT

- + 앱기능 사용시 제공받는 5개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GS&Point 1,000 포인트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플러스앱의 이벤트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이자장사'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영업익 12兆

에프앤가이드 2분기 컨센서스
2분기 영업이익 6.2兆 넘어
상반기 합산 전년비 13% 쏙
이자수익 15.2兆 25% 급증
기업대출 수요 증가 '긍정적'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금융사들의 공공성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은 6조2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6조3803억 원)과 합산하면 12조5995억 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상반기(11조1414억 원)보다 1조4000억여 원(13%)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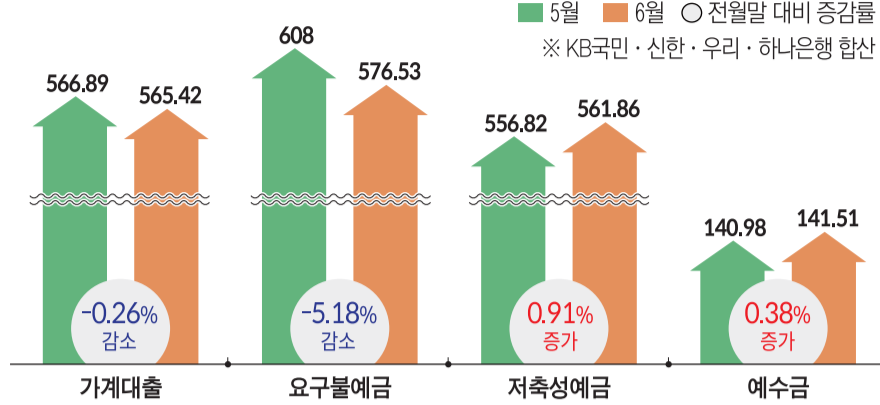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이자수익은 15조2100억 원으로 작년 2분기(12조1638억 원)보다 3조462억 원(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수요가 가계에서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주요 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6월(28일 기준) 가계대출은 565조4239억 원으로 전월(566조8948억 원)보다 1조4700억여 원 적다. 이달 마감까지 2영업일이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전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달 원화예수금은 이미 전월 한

4대 시중은행 가계 여수신 현황 (단위: 조원)



달치를 넘었다. 이달 현재(28일 기준)까지 4대 은행의 원화예수금 총액은 1415조1619억 원으로 5월(1409조8238억 원)보다 5조3381억 원(0.38%) 더 많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1금융권인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 기로 예·적금 금리도 오르고 있는 만큼 주

식이나 가상자산으로 빠져들던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김인 BN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B 금융의 2분기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한 2조8000억 원을 예상한다"라며 "마이너스 가계대출 대비 기업대출 중심의 원화대출성장 지속 등이 이익증가

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신한 지주의 경우 2분기에도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은 상승하겠지만 가계대출 부진으로 대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 지주를 분석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7월부터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예상보다 정책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매에 대한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추정되고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면 주택담보뿐만 아니라 가계 일반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올린다... "금리요건 합리화"

금융위 중금리대출 축소 우려
상한금리 한도 1.5~2%p 상향
하반기엔 0.29~0.51%p 올려

다음 달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금리 상승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은행·상호금융·카드업권은 각 2%p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업권은 1.5%p 인상에 각각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업권별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 6.5→8.5% △상호금융 8.5→10.5% △카드 11.0→13.0% △캐피탈 14.0→15.5% △저축은행 16.0→17.5%로 각각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단위: %)*2022년 기준

업권	상반기	하반기	증감률
은행	6.5	8.5	0.29%p
상호금융	8.5	10.5	0.51%p
카드	11.1	13.29	0.29%p
캐피탈	14	15.5	0.45%p
저축은행	16	17.5	0.30%p

*출처: 금융위원회

변동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새 기준으로 민간중금리 대출 실적이 집계된다.

앞으로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 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한다. 다음 달 1일에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 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 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더 낮은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카드지갑 잃어버렸다면 앱에서 한번에 분실신고"

금융위 여카운트인포 앱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운영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여카운트인포 앱(사진)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하는 서비스로,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여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여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된다. 해당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시간·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짜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여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국민銀, 美 JFK국제공항 재개발 파이낸싱 공동주선

총 3억달러 규모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미화 3억 달러(약 3880억2000만 원) 규모의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재개발 사업인 'JFK New Terminal One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 주선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JFK국제공항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항 중 하나로 대표적인 관광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공항시설 노후화 및 터미널 부

족으로 인해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주선기관인 M·UFG, SMBC, ING은행 등과 나란히 공동 주선기관으로 참여했다. 총 신디케이션 금액 미화 약 66억 달러를 모집하는 데 있어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공동 주선은 KB국민은행과 칼

라일 그룹이 2021년 체결한 전략적 투자협약의 성과로 국내의 담당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IB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칼라일 컨소시엄은 2018년 주주관청인 뉴욕 및 뉴저지 항만공사로부터 JFK 국제공항 내 제1·2 터미널 통합 및 확장 개발 사업(New Terminal One)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저축銀중앙회, 전자금융 이체시 개별 은행명 표기 추진

고객 불안·착오 송금 우려 불식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이체 거래 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전자금융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하면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기재됐다.

저축은행업권은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0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어서다. 이로 인해 정확한 이체 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오화경 저축銀行중앙회장

과 착오 송금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대신 개별저축은행명칭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명칭을 식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 왔다.

중앙회는 이체정보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와 이체결과안내 단계(이체완료 직후 단

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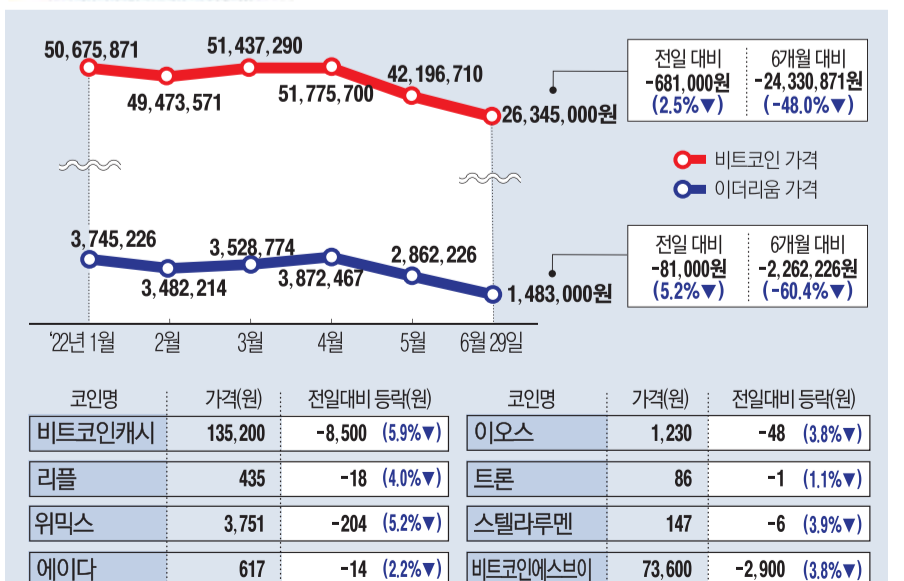
현재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모바일(SB톡톡플러스)뱅킹에서는 저축은행 간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다.

자체 전산과 앱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 기관 대부분은 연내 자체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빗썸 지수 (2022년 6월 29일 17:00, KST)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세계증시 더 떨어진다” 투자 줄이는 서학개미

美주식 순매수액 1년來 최저
6월 4억弗…올들어 20억弗↓
공급망 차질에 디플레 우려
99억弗 담아 20개월來 ‘최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나스닥 반등 기대에 매수 1위

세계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자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미국 주식 순매수(매수-매도) 금액은 지난해 6월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베팅하며 미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4억 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이는 2021년 6월(2억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 규모는 24억 달러였으나 등락을 반복하면서 순매수 규모는 다섯 달 새 20억 달러 줄었다. 매수 규모는 2020년 10월(73억 달러)로 돌아갔다. 이달 들어 투자자들은 99억 달러 규모로 사들였는데 이는 2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서학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이미 경기침체 상태”라며 “45년 경력에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난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우드 CEO는 “인플레이션

은 곧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들어 입장을 바꿨다. 이날 그는 “공급망 체인 문제가 2년째 지속돼 믿기지 않는다”라며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였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건 우드 CEO뿐만이 아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구조적 장기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60%”라고 밝혔다. 래리 전 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저금리에도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그동안 금기시됐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지수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려왔다. 3대 지수의 올해 첫 거래일과 이달 28일(현지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3만 6585.06→3만946.9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4796.56→3821.55 △나스닥 지수 1만5832.80→1만1181.54 등이다. -29.37~-15.41% 하락한 것이다.

서학 개미들이 이달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1억2339만 달러)였다. 나스닥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나스닥이 오를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어 테슬라(1억2162만 달러), 애플(3744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초 국내 투자자가 많이 매수한 상위 10 종목 안에 들었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유발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날그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침체 우려 자체는 높긴 하지만 본격적인 침체를 주가에 반영하는 작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문수빈 기자 bean@

‘현대오일뱅크’ 상장 예비심 통과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
오늘 케이뱅크도 예비심 신청

현대중공업 그룹 정유사 현대오일뱅크가 기업공개(IPO)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30일 본격적으로 IPO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현대오일뱅크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11월 19일 설립된 석유 정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청일 현재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74.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조3189억 원, 영업이익 5653억 원 시현했다.

증권가와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르면 3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신청한다. 대표 주권사는 NH투자증권과 JP모건, 씨티증권이며 삼성증권이 공동 주관한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는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되므로 심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을 거치면 공모 청약에 돌입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BC카드가 지분 34.0%를 보유한 최대 주주며, 주주사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도 포함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772만 명이며, 수신 규모는 11조3300억 원, 여신 규모는 8조4900억 원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SK윌더스, 윈스토어 등 공모 대어들의 상장 철회가 잇따랐다. 그런데도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연내 코스피 입성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안정적 이익 성장세 등에 따른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 225억 원을 기록하며 이자 부문과 비이자(수수료) 부문에서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연간 이익 규모를 넘어서는 2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백두산-윤여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는 높은 성장성과 차별화된 수익성만으로도 기업가치 6조 원이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신저가 행진에… ‘카카오 3형제’ 시총 49兆 증발

카카오 1년 새 주가 반토막
뱅크 65%·페이 74% 폭락

올해 들어 카카오3형제(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 49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12%(800원) 내린 7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의 주가는 1년전 종가기준 15만8000원에 달했으나 절반 아래로 추락한 상태다. 이달 들어서만 고점 대비 18% 가량 떨어졌다.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7.85%(2650원) 급락한 3만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페이는 3.88%(2500원) 내린 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연신 52주 최저가를 경신해오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날 또 저점을 낮췄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고점 대비 65%, 카카오페이는 74% 가량 빠졌다.



카카오3형제의 시가총액은 올해 총 49조5000억 원 가량 줄었다. 카카오는 올해 약 20조5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약 14조 원, 카카오페이는 15조 원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빠기 행렬이 이어졌다. 올해 외인은 카카오 1조1718억 원, 카카오뱅크 8900억, 카카오페이 3277억 등 총 2조3895억 원 어치 물량을 쏟아냈다.

증권사들도 연이어 목표가를 낮춰 잡고 있다. 지난달 이후 카카오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16개 중 10개가 적정주

가를 하향조정했다. 16개사의 평균 적정주가는 12만2000원이다.

올해 영업이익의 전망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 1월 1조372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달 8384억 원까지 떨어졌고, 이달엔 8208억 원으로 내려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주들의 밸류가 낮아지고 있다”며 “카카오는 광고, 커머스 사업에 대한 우려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철에 대한 새로운 생각

불에 타지 않는 나무
 깨지지 않는 돌
 찢어지지 않는 벽지

Luxteel

LG, 미래 먹거리 '클린테크' 낙점... 5년간 2兆 '베팅'

구광모 회장, 친환경 드라이브

LG가 인공지능(AI), 배터리, 전장(자동차)과 함께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관련 사업 육성에 나선다.

LG는 29일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클린테크'(Clean Tech)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린테크는 탈탄소와 순환경제 체계 구축 등 기업이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뜻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들은 최근 전략보고회에서 △바이오 소재 △폐플라스틱·폐배터리 재활용 △탄소저감 기술 등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LG는 지난달 말부터 중장기 사업전략 점검을 위한 전략보고회를 진행 중이다.

LG는 클린테크 분야에서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폐플

폐플라스틱·폐배터리 재활용 등 탄소중립·순환경제 체계 구축

"고객경험 혁신 이끌 기술 선도 관행 벗어나 채용 경쟁력 확대"

라스틱·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확보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저감 기술 강화 등을 먼저 추진한다. LG 측은 "이미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친환경 분야 투자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클린테크 분야가 LG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전날 구 회장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있는 LG화학 R&D(연구·개발) 연구소를 방문해 클린테크 관련 인력 현황,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친환경 바이오 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LG

기술 개발 및 전략을 살피고 클린테크 분야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선도적으로 선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하는 이미지를 명확히 세우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R&D 투자 규모

와 속도를 면밀히 검토해 실행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채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LG는 향후 5년간 국내외에서 클린테크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객사에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자 협업, 지분투자,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으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지속 탐색한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미국 곡물기업인 ADM사와 합작법인을 통해 2025년까지 미국에 7만5000톤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또 충남 대산의 나프타 분해 센터(NCC) 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이용해 연 5만 톤 규모의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지난해 12월 600억 원을 투자해 북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Li-Cycle)의 지분 2.6%를 확보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10년 동안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LG그룹은 올 하반기에 중장기 탄소 감축 전략, 해외 탄소 감축 사업 개발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태우 기자 burning@



"LG 스탠바이미 체험하러 오세요" LG전자가 이달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서울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 LG 스탠바이미(StanbyME)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 클럽'을 오픈했다. 모델들이 LG 스탠바이미와 자전거 시뮬레이션 앱인 즈유프트(Zwift)를 연동해 실제 자전거로 사이클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롯데케미칼, 배터리 전해액 4대 소재 통합생산

EMC·DEC 기술 국내 첫 개발

롯데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자체기술개발을 통해 EMC(에틸 메틸 카보네이트), DEC(디 에틸 카보네이트) 생산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인 전해액 유기용매의 핵심 소재 4종을 모두 생산하게 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5월 대산공장 내 약 21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용매 제품인 에틸렌 카보네이트(EC)와 디메틸카보네이트(DMC) 공

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14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전해액 유기용매의 핵심 소재 4종 생산을 추진하게 됐다.

롯데케미칼이 생산하게 되는 소재 4종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해액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유기용매로 전해액 원가 비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전기차 수요에 맞물려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로서, 롯데케미칼은 이번 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재의 국산화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다숨 기자 citizen@

SK(주) 머티리얼즈-쇼와덴코, 美 반도체 소재 공략

북미 동반 진출 업무협약 체결

SK(주) 머티리얼즈는 일본 쇼와덴코와 '반도체 소재 북미 동반 진출 검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K(주) 머티리얼즈와 쇼와덴코는 지난 2017년 영주시에 합작법인 SK쇼와덴코를 설립하고 3D낸드용 식각가스(모노플루오르메탄, CH3F)를 생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차세

대 필수 식각가스(브로민화수소, HBr) 국산화를 위해 양산 공장을 건설 중으로 7월 준공한다.

양사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협력 성공 사례를 통해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미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 빠르게 포착해 더 큰 성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특수가스 소재에 대한 최적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경제성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이다숨 기자 citizen@

글로벌 고유가·친환경 열풍에... 한화솔루션, 태양광 흑자전환 '썰렁'

美 3배·유럽 2배 발전량 확대 年평균 50GW 설치 수요 전망

전문가 "사업 수직계열화 통해 中 밸류체인 의존 벗어나야"

올해 태양광 설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의 흑자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태양광 업계의 평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불고, 고유가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고평가되면서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미국은 2022년 7.5GW(기가와트)였던 태양광 발전량을 2024년까지 22.5GW로 늘리고, 유럽은 에너지 안보계획 '리파워(REPower)EU'를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현재 대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의 양호한 수요를 바탕

으로 연평균 50GW의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무적인 것은 한화솔루션이 미국과 유럽으로 판매하는 태양광 모듈 비중이 전체 판매의 60%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2020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이 올해 흑자 전환에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리스크들도 있다. 현재 태양광업계에서 중국은 밸류체인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부

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이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태양광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달하는데 중국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탈중국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을 다시 수직계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태양광 사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

퍼-셀-모듈-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8년 잉곳-웨이퍼, 2020년 폴리실리콘 사업을 차례로 철수하며 현재 셀(태양전지)과 모듈(패널)만 생산하고 있다.

한화솔루션도 수직계열화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REC실리콘의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 폴리실리콘의 직접 확보를 통해 태양광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태양광 사업의 '계입체인저'로 불리는 태양전지 양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이 최근 기존 태양전지를 만드는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든 얇은 셀을 쌓아(적층) 6인치 태양광 탠덤 셀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강동진, 한화지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은 판가 인상과 운임, 비철금속 가격 하락 등 비용 하락 요인으로 하반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다숨 기자 citizen@

잘빠진 유선형 외모... 현대차 '아이오닉6' 첫 공개

E-GMP 기반 첫 세단형 전기차 공기역학 디자인 바람 저항 최소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식스)' 디자인을 29일 전격 공개했다.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가운데 첫 세단형 모델이다.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아이오닉 6는 깔끔하고 감각적인 곡선들로 완성된 유선형 실루엣을 통해 뛰어난 공기역학적 형상이 구현돼 있다.

아이오닉 6는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현대차의 전동화 시대 새로운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릭라이드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내·외장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됐다. 사진제공 현대차

스트림라이너(Electrified Streamliner)'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스트림라이너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뜻한다.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현대

차의 두 번째 모델이다.

긴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비율과 함께 넉넉한 공간성을 갖춰낸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현대 엠블럼이 처음으로 적용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입체 형상의 크롬 도금 대신 알루미늄 소재의 얇은 평면 형태로 제작된 신규 엠블럼은 고급스러운 질감과 더욱 선명하고 세련된 형태로 전동화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현대차의 모습을 담고 있다. 새로운 현대 엠블럼은 향후 현대차가 선보이는 신차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내장 디자인에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을 적용해 사용자 중심의 감성적 공간을 구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님의 상속설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KB위대한유산

고객님의 종합 상속설계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가 상담해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KB국민은행에서
위대한유산을 만나보세요



전문가의 원스톱 솔루션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원스톱 솔루션

종합자산관리

전문적인 자산운용 컨설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

안전한 상속설계

사전 상속설계로
체계적인 사후 재산분배

1:1 맞춤형 플랜

사후수익자의 연령,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속설계

※ KB위대한유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480호(2022.05.16), 광고물 유효기간 2022.12.31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목소리 반영해야”

중기중앙회 기자실 첫 방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에 “매출이 객관적 기준” 입장 고수
벤처 투자 유동성 악화 대책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작동되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기자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기부 현안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중기부 입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에 대해 상황에 맞게 유연한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시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는 것에는 중기부도 반대하지만, 유연 근무제를 지급처별 주 단위로 할 것이냐 월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국가가 하듯이 연 단위로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삼가고 있지만,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 중인 손실보전금 사

각지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매출 및 폐업일 기준 등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이은청 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던 거로 안다”면서 “그 발표와 설명 내용에 대해 큰 구조의 변화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인 민원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유동성 악화로 초기 투자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에 이와 관련 내부 논의를 했다”면서 “올해 벤처 투자 결성 금액과 상반기 투자금액도 기대 이상의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벤처 생태계 악화) 파도가 덮치고 있다고는 숫자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 리스크 대응 TF를 발족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파도의 범위의 규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시기에 관한 질문에 이 장관은 “법안이라는 것이 발의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서로가 조금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고유 영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용 전기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상품은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금융투자협회 심사일 제 21-05216호(2021.11.17~2022.11.16)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일 제 77-207호(2021.11.15~2022.11.14)

KYOBO 교보증권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권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핫트랙스, 영웅문고, 만다영플러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이동통신요금 10%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5-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용
- 6 신청완료 카드 배송 시작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거액인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 자유의 사항 * 금융상품은 투자상품 가격 하락,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CMA 입금액은 RP 등에 투자됩니다.
* 온라인 주식 기본거래수수료는 0.143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만원 안팎 5G 중간요금제 나온다

이통3사, 月 20~30GB 제공

‘5세대(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가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달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G 중간요금제란 통신 3사의 주력 5G 요금제인 110~150GB 데이터 제공 상품과 기본 요금제인 10~12GB 상품 사이 신설되는 새로운 요금제를 말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월 6만 원 안팎에 20~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을 담은 새로운 중간요금제 출시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내달 11일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만나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것으로, 당초 7일로 예정됐지만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해 11일로 변경됐다.

5G 중간요금제는 5G 서비스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5G 요금제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싼 고가 요금제와,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한참 못미치는 10GB~12GB 정도의 양을 제공하는 저가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6GB(기가바이트)를 기록했다.

5G 가입자 수도 2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2347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B, 국가 기간통신망에 양자암호기술 적용

도청·해킹 리스크 차단

양자암호기술 적용으로 인해 도청과 해킹 리스크를 차단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국가 기간통신망에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으로 총 48개 정부부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제1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국가통신망 도청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 기밀사항, 개인정보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양자암호통신은 불확정성, 중첩, 복제불가능과 같은 빛의 양자적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안전한 보안수준을 자랑한다.

SK브로드밴드의 국가 기간통신망 양자암호기술 적용은 총 800km에 달한다. 지금까지 구축된 민간의 양자암호망은 구간당 30km~70km에 불과했다. 이보다 먼 거리



SK브로드밴드가 국가 기간통신망에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제공 SKB

를 전송할 경우 중계 기술의 한계로 대규모 양자암호망 구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국가융합망 각 구간을 약 30여개 양자중계기로 손실 없이 연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총 800km에 달하는 전국망 규모 양자암호망 적용에 성공했다.

이번 국가융합망 구축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고 백분망과 액세스망을 최대한 분리해 구축했다. 약 10년 이상 SK그룹 차원에서 투자한 기술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은 것으로, 유럽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에서 승인받은 ‘양자암호통신(QKD 기반) 네트워크 통합관리규격 표준’ 7건을 이번 국가융합망 구축에 도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고치!
김치는
이래야지!



세계를 사로잡다
농협의 이름으로

* 농협몰(www.nonghyupmall.com)과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0% 우리 농산물로 믿을 수 있게
- HACCP 인증으로 청결하게
- 각지역의 특색을 담아 정성스럽게

신동원號 1년... '대체육' 키우고 'K라면 톱' 굳혔다

**'베지가든' 라인업 40여종 확대
美 신공장... 해외 경쟁력 강화
인플레 악재에도 매출상승 주도**

신동원 농심 회장이 다음 달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신라면 신화'로 유명한 신동원 회장의 별세 이후 농심의 수장이 된 신 회장의 지난 1년은 '보폭 확대'로 요약된다.

라면, 스낵 등 기존 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고자 마래 먹거리인 대체육 사업을 강화했다. 그 결과 농심 대체육 제품은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 라면 시장에서 선두에 오르기 위해 현지 신공장도 가동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세는 농심 성장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신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면, 스낵 등 기존 주력 사업에만 의존하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취임 당시 "임직원 모두가 젊은 피가 돼 스타트업처럼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공을 들인 마래 먹거리는 대체육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글로벌 기후위기 등으로 자연스레 채식 인구가 늘면서 비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리서치뷰에 따르면 글로벌 비건 시장규모는 2018년 15조 원에서 2025년 28조 6000억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농심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작년 초에 선보인 대체 식품 브랜드 '베지가든' 라인업을 최근 40여 종까지 늘렸다. 지난달에는 신제품 비건 불고기 볶음밥을 출시했다. 베지가든은

품질을 인정받아 중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국, 동남아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베지가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비건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달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을 열었다. 포리스트 키친은 단일 코스요리로 다양한 비건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라면으로 대표되는 주력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신경쓰고 있다. 농심은 올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제2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농심 미국 제2공장은 약 2만6800㎡(8100평) 규모로 용기면 2개와 봉지면 1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2공장 가동으로 농심은 미국에서 총 8억500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게 됐다.

신 회장은 "제2공장은 농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해줄 기반"이라며 "일

본을 제치고 미국 라면 시장 1위에 오르는 것은 물론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꿈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전진하겠다"고 했다.

농심은 올해 1분기 악재에도 매출 7363억 원, 영업이익의 343억 원을 달성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6.1%, 21.2% 늘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신동원 농심 회장 1년 성과

- 대체육**
 - 대체식품 브랜드 '베지가든' 라인업 40여 종까지 확대
 - 베지가든 중국 진출
 -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 오픈
- 라면 스낵**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2공장 가동
 - 새우깡 블랙 흥행

농심 최근 매출·영업이익

(단위: 원) ※ 1분기 기준

● 매출 ● 영업이익

※ 출처: 금융감독원



GS리테일이 최첨단 리테일테크(소매 유통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가 총동원된 편의점 GS25 DX LAB(디지털 경험 연구소)점을 서울 역삼동에 30일 오픈한다. 사진제공 GS리테일

“안면 인식 결제”...GS25, 최첨단 ‘DX LAB점’ 오픈

**연구소 콘셉트로 리테일테크 실증
AI 감지 등 19가지 운영 기술 적용**

GS25가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미래형 편의점 'DX LAB'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연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점포로, 전국 편의점에 상용화하기 전에 19개에 달하는 디지털 기술을 먼저 실험하고 선보이는 곳이다.

△안면 인식 결제 솔루션 △AI 점포 이상 감지 시스템 △무인 운영점 방법 솔루션 △영상 인식 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미디어 월 △주류 무인 판매기 △라테아트 기기 등

19가지의 가맹점 운영 편의 솔루션과 고객 경험 극대화를 위한 기술이 적용됐다.

가령 이전에는 무인점포에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했다면 이 점포에서는 QR코드 인증으로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된다.

점포 내에 21개의 스마트카메라와 200여 개의 센서가 적용됨은 물론 AI 카메라를 통해 고객 연령대, 성별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도 송출된다.

무인 편의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방법 기술도 적용됐다.

카운터, 진열장 접근 등 방법 침해 징후 포착 시 경비가 출동하고, 고객이 편의점에 장기 체류하거나 쓰러지는 등 이상 징

후가 감지되면 영상으로 인식해 알람도 전송한다.

이 외에도 고객 얼굴을 라테아트로 만들어주는 카페라테 아트기기, △에스프레소, 디카페인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셀프존(ZONE) △텀블러 세척기 △리유저블(다회용)컵 반납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첨단 카페25 공간도 마련됐다.

김주현 GS25 뉴컨셉전개팀장은 “디지털 경험에 익숙한 미래 고객과 점포 운영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영자들을 위해 첨단 리테일테크를 실증하는 장을 마련했다”라며 “오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의 특별한 경험을 소비자들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VIP 고객님 모셔라!” 팝업 스토어 ‘빌드업’

**럭셔리 브랜드로 소비자 유혹
신세계, 보테가 베네타 론칭**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로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매장에 다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팝업스토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롯데 높은 명품 등도 팝업스토어 개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통업계의 팝업스토어도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국내 최초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가 내달 10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열고 신규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The Stage)에 자리잡은 팝업스토어에서는 카세트 벨트백, 아르코 미니 토트백 등 보테가베네타를 대표하는 핸드백들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팝업 기간 신세계 강남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도 준비해 브랜드 매니아들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세계 강남점을 비롯해 지난 해 문을 연 더현대 등은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 높기로 유명한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연달아 자리를 차지하고 국내 최초 및 단독 상품을 이색적인 콘셉트와 함께 선보이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인증샷’이 필수인 MZ세대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도 몰리고 있다. 팝업스토어 특성상 자세한 방문자 수 집계는 힘들지만 현대백화점이 지난 4월과 5월 각각 무역센터점과 더현대 서울에서 문을 연 프라다 ‘트로피코(Tropico)’ 팝업스토어 진행 기간 동안 프라다 매장을 찾은 고객이 팝업 진행 전 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 기존 매장을 벗어나서 열리는 팝업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보테가베네타 팝업점 전경.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토어도 증가 추세다. 롯데마트는 8월 새롭게 론칭하는 하이엔드 한우 브랜드 ‘마블나인’의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한우 오마카세 레스토랑인 ‘우월’에서 기간 한정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마블나인(Marble 9)’은 마블링 최상급에 해당하는 한우만을 다루는 롯데마트의 하이엔드 한우 브랜드로, 이번 팝업 행사는 지난 4월 롯데의 세번째 시그니처 와인 출시를 기념해 동묘에 와인바 팝업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던 ‘관심금구 프로젝트’의 두번째 활동이다.

실제로 동묘에 선보였던 와인바는 연일 만석 기록을 세우며 소비자들에게 롯데마트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한 바 있다. 한달 사이 방문객만 2000여 명에 달한다.

편의점인 이마트24는 6월 한달 동안 MMORPG ‘검은사막’,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과 손잡고 삼정동에 팝업스토어 ‘24BLACK’을 오픈했다. 특히 매장 2층에는 실제 명품 아이템이 전시돼 있으며, 매장 내 스탭들은 흰 장갑을 끼고 안내하는 등 명품 매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다. 전시돼 있는 명품 아이템은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연결된 머스트잇 사이트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팝업스토어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매장과 달리 특정 목표를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영업하는 임시매장을 뜻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세프가 찾은 “한국의 맛”... 맥도날드 ‘보성녹돈 버거’ 출시

한국맥도날드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점에서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Taste of Korea, 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성녹돈 버거’를 공개했다.

한국의 맛 프로젝트는 고품질의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해 신메뉴를 출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창녕갈릭 버거’는 출시 후 한 달간 158만 개 이상 판매됐다.

이번에 공개한 보성녹돈 버거는 전남 보성 녹차잎 사료로 충청 지역 농장에서 키워낸 보성녹돈 패티가 담겨 있다. 보성녹돈은 다른 돈육에 비해 비타민B1, 리놀렌산 함량이 높다.

돼지고기 패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 총괄 셰프 최현정 이사는 “조사 결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설명했다. 햄버거 속 양배



맥도날드 신사역점에서 신메뉴 ‘보성녹돈 버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맥도날드

추와 적양파, 토마토도 모두 국내산이다.

소스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햄버거와 조화를 이루는 스파이시 치즈 소스는 체다 치즈와 그라나파다노 치즈, 카넬 페퍼를 조합해 한국인이 선호하는 매콤한 맛을 구현했다.

보성녹돈 버거는 30일부터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다. 단품은 6300원, 세트는 7600원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까지 맥런치 시간에는 세트 메뉴를 6800원에 선보인다.

한국맥도날드가 총괄 셰프까지 참석해 이례적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연 이유는 치열해진 국내 햄버거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내 햄버거 시장은 오랫동안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이 장악해 오다가 2010년대 이후 맘스터치,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등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경쟁 구도는 재편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차별화된 신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최 이사는 “앞으로도 고품질의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백신주권 확보한 韓... 국산 '먹는 치료제' 내달 분수령

식약처, SK바사 백신 품목허가

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로 백신주권이 확보되면서 먹는 약(경구용 치료제) 개발의 현주소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일부 기업이 올 3분기에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상반기엔 백신, 하반기엔 경구용 치료제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0여 곳의 제약·바이오기업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5만2000명에게 투약하고 올해 2월 사용이 중단됐다. 셀트리온은 최근 흡입형 카테일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도 중단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손을 뗐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다국적제약사의 제품뿐이다. 이에 따라 치료제의 자급화, 특히 투약이 편리한 경구용 치료제의 자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일동·시오노기 치료제, 7월 판가름= 속도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S-217622'가 가장 빠르다. 지난달 국내 임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투약도 마쳤다.

지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S-217622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 약은 경증·중등증 환자 428명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 검출율이 90% 감소하고, 바이러스가 음성인 될 때까지의 시간은 1~2일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기침, 목 통증, 콧물, 코 막힘, 호흡 곤란의 5가지 증상을 개선했다. 시오노기는 지난 2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GBP510)

●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과정

접수

4월 29일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

예비심사

→

심사 및 실태조사

→

자문

→

허가

6월 29일

→

국가출하승인 (백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

총 1천만 도즈(1회 접종분) 공급
방침 하반기 상용화 예정

작용 방식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
항원(비알(병)과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
혼합해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

보관 방법

냉장(2~8도)보관 가능. 초저온 유통정비가 없는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 mRNA(화이자·모더나)
방식보다 보관 용이

임상시험

한국·베트남·필리핀·태국·뉴질랜드
·우크라이나에서 면역원성 비교 3상 수행

임상시험

한국·베트남·필리핀·태국·뉴질랜드
·우크라이나에서 면역원성 비교 3상 수행

성능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주' 중화항체가의 2.93배
혈청전환율 98.06%

'스카이코비원멀티주' 개발명 (GBP510)

제조사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개발 경구용 치료제 임상 현황

기업	제품명	임상단계	대상 환자	진행 현황
비엘(바이오리더스)	BLS-H01	2상	중등증	승인완료
현대바이오	CP-COV03	2상	경증·중등증	모집중
일동제약	S-217622	2b/3상	경증·중등증	모집완료
대원제약	티자페논정	2상	중증	모집중
제넨셀	ES16001	2/3상	경증·중등증	모집중
아미코젠파마	AGP600	2a상	중증	승인완료
진원생명과학	GLS-1027	2상	중등증	승인완료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3상	경증·중등증	모집중
대웅제약	코비블록	3상	중증	모집중
동화약품	DW2008S	2상	중등증	모집중

※출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일동-시오노기 경구용 치료제 국내 임상환자 등록·투약 완료

일 심의결과 따라 韓 승인 가능성

제넨셀, 임상기관 추가 개발 속도

진원생명과학, 해외서 임상 돌입

월 후생노동성에 조건부 조기 승인을 신청, 이후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긴급승인제도를 통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증상 개선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인 시점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긴급승인 여부는 7월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도 이에 발맞춰 국내 사용을 타진할 전망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시오노기가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의 일부 데이터도 포함됐다"면서 "일본 현지의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기관 추가해 개발 속도 앞당겨= 천연물 기반 경구용 치료제 'ES16001'을 개발하고 있는 제넨셀은 3분기까지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회사는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2/3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총 8곳으로 늘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S16001은 국내 자생 식물 담팔수의 잎에서 추출한 신소재 기반의 신약후보물질이다. 환자 투약은 지난달 18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개시했다. 한국은 물론 유럽, 인도, 러시아 등에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넨셀 관계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추가 및 투약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외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약가 경쟁력도 있어 엔데믹(풍토병화) 후에도 시장

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바이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 범용 치료제로 개발 중인 'CP-COV03'의 개발 속도를 당기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늘리고 있다. 현재 베스티안병원을 비롯한 2개 기관에서 환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기권 병원 1곳을 추가해 임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긴급사용승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엘은 27일 경구용 치료제 'BLS-H01'의 임상 2상 환자 투약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에서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 중등증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전 웰니스병원에서도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국내 임상에 해외로 선회=진원생명과학은 해외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9월 경구용 치료제 'GLS-1027'의 2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린 결정이다.

회사는 미국과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에서 글로벌 임상 2상 대상자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막바지 투약을 진행 중이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3분기 중 임상 2상 결과를 확인하고, 연내 긴급사용승인이나 글로벌 임상 3상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빠른 사용을 위해 대부분 정식 품목허가에 앞서 임상 2상 결과를 통한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전보다 심각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긴급사용승인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경구용 치료제 개발사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치료제 개발 판도가 너무 달라졌다"며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 당국이 관심이 있었지만, 긴급사용승인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제약바이오사, 마곡·과천에 새 등지 트는 까닭은

교통·산단·협업 등 장점 많아 전문인력 유치도 긍정적 효과

'한독 퓨처 콤플렉스'와 '제넥신 프로젠 바이오 이노베이션 파크' 사진제공 한독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서울·수도권에 새 보급자리를 마련하며 연구개발(R&D) 효율성 향상에 나섰다. 연구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흩어져 있던 연구 기능을 통합하고, 첨단 시설을 갖춘 연구소 건립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새 등지 마련은 서울 생활권을 선호하는 인력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여기에 좋은 교통인프라, 관련 기업과의 협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 장점도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서울 마곡산업단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10여 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마곡으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했고, 6개 기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과천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7년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 신약연구소가 마곡 LG사이언스파크로 등지를 옮겼고, 코오롱생명과학도 2018년 본사와 연구소를 마곡으로 이전했다. 바이오 기업으로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SD생명과학 등이 대표적이다. 신진제약은 2020년 8월 마곡 연구개발센터 준공을 마쳤고, 삼진제약과 한독·제넥신은 올해 마곡에 대규모 첨단 연구시설 건립을 마치고 본

&C신약연구소(면역치료제·항암제), JW신약·JW크레아젠(수지상세포·항암백신), JW생명과학 HP연구센터(수액) 등이다.

한국약품은 본사와 연구소(구로)를 통합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과천으로 이전한다. 지난해 판교에 자리잡은 휴온스는 2023년까지 약 530억 원을 투입 신규 연구시설을 과천에 세운다. 광동제약도 2024년 7월을 목표로 약 568억 원을 투입해 신축 사옥 건립에 나선다. 일선신약과 경동제약도 과천 이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제약기업 연구소는 경기 용인, 화성, 안산 등 서울과 거리가 있는 외곽 지역이었다. 이후 판교테크노밸리에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들이 대거 이전했다. 29일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자료에 따르면 일반·초청연구와 연구지원으로 입주한 기업만 약 48개에 달한다. 또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입주한 인천 송도도 제약바이오 단지로 주목 받기도 했다.

지방에 자리한 바이오기업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이전을 고민 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서울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 또는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는 바이오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

세계 3번째 '백신·치료제' 개발 韓, 백신 수출국으로 거듭나

'스카이코비원' 유통·보관 강점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 추진

'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마침내 탄생했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백신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백신 수출국으로 탈바꿈할지 기대를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이하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9일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코로나19 발생 약 2년 6개월 만에 나온 성과로,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개발한 나라가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발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우리가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초접종(1·2차 접종)에 대해서만 허가했지만,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해 추가접종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되면서 스카이코비원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에 나서며,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리스트(EUL) 등재를 추진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스카이코비원은 2-8도의 냉장 유통과 장기 보관이 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초저온설비를 갖추지 못한 중·저개발 국가의 방역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된 코로나19 백신 5종은 모두 해외 제약사의 제품이다. 한국바이오협회가 3월 공개한 '글로벌 백신 시장 및 한국의 백신 수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백신 수입 규모는 23억5500만 달러로 수출액(5억 1900만 달러)의 4.5배에 달한다. 앞으로 스카이코비원의 해외 사용이 가시화되면, 한국은 백신 수출국으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숙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WHO에 신청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사전 검토(롤링 리뷰)에 들어갔다"면서 "(스카이코비원은) WHO 승인 이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외에서 동종 및 이종 추가접종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연령 확대를 위해 청소년 및 소아 대상 임상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주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확장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원래 우리 인생은
원하는 것의 연속
원만한 지갑사정부터
원대한 은퇴계획까지
원~더풀하게 사는 법

알길 원해?
우리 **WON**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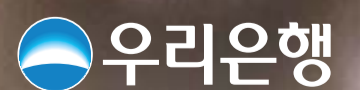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금융생활의 답
우리 **WON**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내가 원하는 금융생활의 답
우리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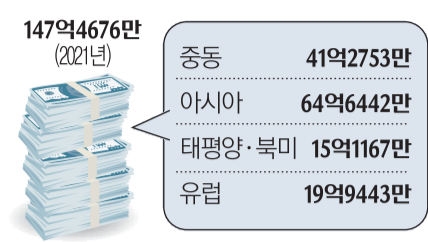


※ 우리WON뱅킹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 2022.05.30 준법감시안-5328 심의필 (유효기간: 2023.12.31)

“중동서 반토막”... 건설사 상반기 해외수주 22% ‘뚝’

건수는 전년비 11.4% 늘었지만 해외 누적 수주액 115억달러뿐 “친환경 에너지 투자 늘어나며 화석에너지 투자비중 줄어든 듯 원자재값 상승 등 불확실성 유이”

해외수주 현황 (단위: 달러, 상반기 기준)



* 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수주액(147억4676만 달러)보다 22.2% 줄어든 금액이다. 다만 수주 건수는 273건으로 전년 동기(245건)보다 11.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수주가 67억3403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5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동 22억3091만 달러(19.4%), 유럽 19억789만 달러(16.6%), 아프리카 2억3208만 달러(2.0%)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중동 국가 내 수주액 급감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인 중동 수주 규모는 작년 동기 실적(41억2753만 달러)의 반토막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사실상 중동 지역의 수주 가뭄이 전체 시장 부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강정화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 건설기업에 발주가 확대돼 외국기업들의 시장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중동 지역도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화석에너지 기반의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부진으로 빈 공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워주고 있다. 아시아, 유럽 지역 수주액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4.2%, 84.6%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24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의 자회사인 와리정유화학 4억9232만 달러 규모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8826만 달러)보다 27배 늘어난 24억3539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지역 공사 건수는 154건에서 147건으로 줄었지만, 건설사들이 규모가 큰 공사를 따내면서 실적 향상에 한몫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으로 발주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원자재값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우호적인 유가 상황과 석유화학 제품 공급을 위한 플랜트 증설 수요 등으로 중동 플랜트 발주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300억 달러 수주 달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도 202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다윈턴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다변화 및 신사업 개발 등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toto@

“건축·교통·환경평가 한번에... 신통기회 사업 단축”

서울시, 통합심의위 구성 사업기간 크게 단축시키는 신통기회 정비사업의 핵심 부지면적 5만㎡ 미만 대상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주택정책실장, -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 위원: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각 9~10명
위원 임기	2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개최 시기	심의상정 의뢰 후 30일 이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회) 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음달 신통기회의 핵심인 통합심의위를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전담 부서 신설도 계획 중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각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통합심의는 이를 한꺼번에 진행한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돼 신통기회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 앞서 4

월 통합심의의 진행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뽑고, 신통기회로 들어오는 것부터 진행하려고 한다”며 “위원이 구성 이후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주택정책

실장) 및 부위원장(주택공급기획관)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주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분야별 통합·개별 심의도 가능하다. 심의 대상은

부지 면적 5만㎡ 미만인 신통기회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가 5만㎡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대상지는 늘 것으로 보인다. 구가 시로 심의상정을 의뢰하면 30일 이내에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시는 통합심의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 및 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신통기회를 적용하는 정비사업자가 많아지면서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 팀을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며 “신설 전까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팀에서 통합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본격적인 신통기회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에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단축된다.

시는 신통기회 후보지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만큼 해당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비업체에 따르면 신통기회 1호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신항빌라’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원희룡 “도시·지역 간 압축연결...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촘촘히 연결 금융·부동산 등 전 규제 정상화”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은 새로운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도시·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사람, 자본, 일자

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주거 정책을 펼 것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50만 가구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디지털 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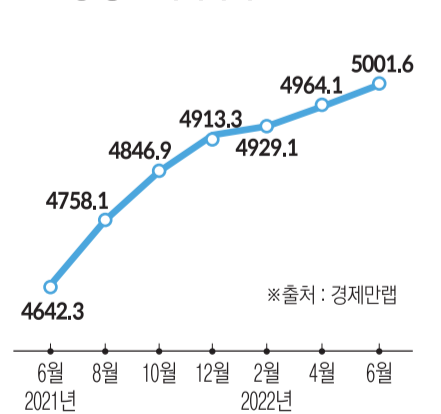
이어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 혁신 선도 부처가 되겠다”고 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분당 아파트값, 평당 5000만원 넘었다

지난달보다 12만8000원 올라 외지인 매입비중 32.8% 달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단위: 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5000만 원을 돌파했다.

2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올해 6월 경기 성남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5001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4988만8000원보다 12만8000원 오른 것으로,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분당 아파트 매입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분당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71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89건, 매입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 같은 외지인 아파트 매입비중은 2011년 8월(3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당 아파트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분당동 ‘셋별마을(우방)’ 전용면적 133㎡형은 지난해 5

월 15억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일에는 17억7000만 원에 거래돼 1년간 2억500만 원 올랐다.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삼환)’ 전용 84㎡형은 지난해 5월 11억70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지난달 9일 12억9000만 원에 팔려 1년간 1억2000만 원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비사업 특별법 기대감으로 분당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살아있길 바랐는데”... ‘완도 실종’ 가족 결국 주검으로

바닷속 인양 차량서 시신 확인

온라인에 루나 코인 수회 검색
운영하던 업체 폐업 이후
활동안 무직 상태로 지내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 따른
부모의 신변 비관 원인 추정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바지선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 양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끝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들이 연락 두절된 지 4주 만이자, 조양 학교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지 6일 만이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55t급 바지선과 25t급 크레인선을 동원해 바닷속에 잠겨있던 차량을 인양했다. 이곳에서 실종됐던 조유나 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하루 전인 28일 오후 방파제에서 80여m 떨어진 물속에서 조양 가족의 차량을 발견한 뒤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인양 작업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지난달 17일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살이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일가족은 그러나 같은 날 제주도가 아닌 전남 완도 명사십리 인근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이들은 자택인 광주 남구를 떠나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약한 펜션에 머물렀고, 하루를 건너 뛴 29일 다시 숙소를 찾아 30일 밤 길을 나섰다.

30일 밤 11시경 조양의 어머니가 조양을 등에 업고 숙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 화면에 포착됐고, 두 시간여 뒤

인 31일 오전 1시경 조양과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다. 이날 오전 4시경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전남 완도군 송곡항 부근에서 감지된 게 이들 가족의 마지막 생활 반응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신변 비관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광주남부경찰 등이 압수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양 부모는 지난달 30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했다. 수면제, 극단적 선택 방법 등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서 일가족 3명 실종 주요 정황

5월 17일	광주 남구 거주 조유나(10)양 부모, 5월 19일~6월 15일 제주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 신청 당일 조양 결석 및 전남 완도 펜션 예약
5월 24일	승용차를 타고 고금대교 건너 완도 입도 추정
5월 24~28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한 펜션 숙박
5월 29일	같은 펜션에 다시 입실
5월 30일	오후 11시 조양 추정 아이,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 행적 확인
5월 31일	오전 1시경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조양 어머니 휴대전화 꺼짐(약 20분 간격) 오전 4시경 송곡선착장에서 조양 아버지 휴대전화 꺼짐 확인
6월 16~17일	조 양 결석, 담임교사 조 양 부모와 연락 시도
6월 20일	조양 담임, 조양 거주지 확인 및 방문
6월 21일	학교 측, 경찰에 실종신고
6월 22일	경찰 수사 개시
6월 28일	오후 5시경 전남 완도군 송곡항 방파제 인근 해상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발견
6월 29일	오후 1시 20분경 조유나양 가족 차량 인양, 시신 3구 발견

루나 코인은 일주일간 97% 급락하면서 충격파를 남겼고, 피해자들이 루나 개발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조양 부모가 컴퓨터 관련 업체를 운영하다가 지난달 말 폐업한 뒤 한동안 무직 상태로 지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16일에도 조양이 등교하지 않자 21일 주민센터와 동행해 가정방문을 했고, 우편물만 쌓여 있는 등 인적을 찾을 수 없어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사에 진척이 없자 26일 하루에 만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송곡항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해경과 공조해 헬기, 드론,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하고 수중 탐색까지 진행한 끝에 조양 일가족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하지만 신원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의뢰를 거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인양한 승용차 정밀 감정을 의뢰해 교통사고 흔적이냐 차 고장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꽃 기자 pgot@

10년 끈 정부·론스타 6조대 소송, 연내 결론낼 듯

중재절차 완료... 180일 이내 선고
“론스타 완전히 패소하진 않을 수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가 완전히 패소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한국시각으로 29일 절차 종료 선언을 했다. 이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음을 뜻한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된 지 6년여 만이며, 론스타가 제소한 지 10년여 만이다.

절차 완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80일 이내 선고할 수 있다.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하고 2012년 하나은행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이유 없이 지연시켜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고, 국세청이 차별적으로 과세했다며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조 426억 3835만 원)를 청구하며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 제소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론스타에 민간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태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승소하길 바라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론스타의 입장이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인사 앞두고 옷 벗는 검사 2배 ↑ “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의원면직 처리 검사 15→39명
“우대·배제현상 심해지며 영향
친소관계 따른 정실주의 원인”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 약진과 ‘특수통’ 우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이 검사들의 줄사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면직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인사 후 사직을 고려하는 검사들도 남아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 처리된 한 검사는 “검찰 내부에 ‘누구는 우대 받고 누구는 배제된다’는 현상이 심해지며 사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공안통과 형사통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검사들의 사표 행렬을 두고 2019년을 떠올렸다. 2019년 하반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는 23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번 인사와 같은 규모다.

그해 검찰 인사는 ‘윤석열 친정체제’로 비유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과벌이 검찰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체념과 좌절의식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주의 때문”이라며 “특정 검사들을 배제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그때와 지금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사표를 낸 다른 변호사도 “정권 말이 되면 새 정부에서 좋은 자리에 중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정권 초가 돼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검찰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것이고, ‘물먹었다’ 생각한 이들은 검찰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정수천 기자 int1000@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늘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SNS·다크웹 통한 불법 유통 늘어
불법정보 차단 위해 전자심의 검토

‘병원에서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567정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 판매, 투약한 중고등학생 등 10~20대 59명을 검거.’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공개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 사례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29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4년)’을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3차 대책(2019~21년) 당시 미비했던 온라인 마약 구매, 유통을 단속하는 등 부처 합동 대응이 담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과도하게 처방받는 등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관련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전자심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마약 판매 점검, 단속도 진행한다.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관리한다. 복지부와는 청소년 마약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기순 여가부 차관

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분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경찰청, 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 및 경찰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유해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팀장은 “청소년(마약사범)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의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완전히 불법인 필로폰, 대마와 달리(펜타닐 패치 같은 의료용 마약처럼) 원래는 합법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등 채널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 쪽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꽃 기자 pgot@

“갯벌서 조선 왕실 건축물이?”… 모습 드러낸 용머리기와

충남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출토된 취두(鸕頭) 상단과 검파(劍把)가 언론에 공개됐다. 왕실 관련 건축물에 사용되는 이 유물들이 궁궐터가 아닌 갯벌에서 발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 배를 통해 지방으로 옮겨지던 중 침몰해 수장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왕실 마루장식기와 발굴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주로 궁궐 근처에서 발견되는 취두와 검파가 어떻게 해안가에서 발견됐는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취두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며 궁궐 건축물 용마루 양쪽 끝에 설치하는 대형 장식기와를 말한다. 검파는 이 취두 상단에 쫓는 칼자루 모양의 토제 장식품이다. 청포대 갯벌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연구소는 지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개
충남 태안 청포대서 취두 상단·검파 출토
2019년 발굴 취두 하단과 결합되는 유물
용머리 장식기와의 완전한 형태 최초 확인
“궁궐터 아닌 갯벌서 발견된 경우는 처음”

해 6월에 검파를, 올해 5월에 취두 상단을 발굴했다. 김 소장은 “취두는 일반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로 궁궐에 사용되는데, 이 취두를 만드는 기관을 ‘와서’라고 한다. 와서에서 제작한 취두를 지방으로 내려보냈다는 건 거기에 왕실과 관련한 중요한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로 옮기던 중 침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

나 추정일 뿐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굴한 취두 상단과 검파는 2019년에 조개를 캐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취두 하단과 결합되는 유물이다. 이로써 조선 전기 용머리장식기와의 완전한 형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용머리 장식기와는 화재나 침수로 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권위와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특수기와다. 취두 상단에 쫓는 검파는 빗물이 취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실용적인 용도 외에 게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9일 조선 왕실 관련 용머리 장식기와를 공개했다. 관계자들이 검파를 취두에 쫓는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질이 있는 용에 칼을 박음으로써 도망가지 말고 집을 지키라는 신화적인 용도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발굴된 검파는 길이 40.5cm, 폭 16cm, 두께 7cm 크기의 칼손잡이 모양이다. 앞면면에 2단으로 구름무늬가 표현돼 있다. 취두 상단의 구멍과 잘 결합되도록 짧은 자루도 갖추고 있다. 현재 창덕궁 인정문 등 조선 후기 궁궐 지붕의 용머리 장식기와에 남아있는 검파와는 형태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 전기만 해도 규격화된 형태의 용도상(龍圖象)을 마련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했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석주 기자 ssp@

박해일 “이순신 장군 역, 날 뿔 믿고… 부담 됐다”

‘한산: 용의 출현’ 제작보고회

‘명량·한산·노랑’ 이순신 3부작 중 2편
“밀도 있는 전략으로 전투 행하는 덕장”



‘한산: 용의 출현’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박해일 스틸컷. 사진제공 롯데엔터테인먼트

“돌아켜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대한민국 사람 5000만 인구가 다 아는 위인 이순신 장군 역할을 제안했을 때, 나를 뿔 믿고 그려셨을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28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한산: 용의 출현’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박해일의 솔직한 소감이 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의 뒤를 이은 김한민 감독의 신작 ‘한산: 용의 출현’에서 그는 한산대첩 당시의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아 연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한민 감독, 배우 박해일, 변요한, 김성규, 김성균, 김향기, 옥택연이 함께했다.

‘한산: 용의 출현’은 명량대첩 5년 전인 1592년,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47세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동원해 왜군을 무찌르는 한산해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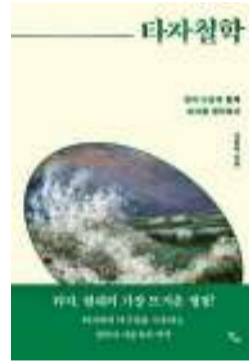
김한민 감독은 ‘명량’, ‘한산’, ‘노랑(미개봉)’까지 ‘이순신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미 김윤석 주연의 ‘노랑: 죽음의 바다’도 활

영을 완료한 바 있다. ‘한산: 용의 출현’에서는 박해일이 이순신 장군 역을, 변요한과 김성규가 경쟁 관계에 있는 왜군 왜기 자카와 가토 역을 맡았다.

이순신 장군 역을 제안 받은 박해일은 평소 부드럽고 예의 바른 이미지를 지닌 자신이 작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김 감독과 상세했다고 한다. 박해일은 “‘명량’ 당시 최민식이 소화한 이순신 장군이 웅망스러운 장군이라면 ‘한산: 용의 출현’에서 자신이 연기한 이순신 장군은 밀도 있는 전략으로 수군과 함께 지혜로운 전투를 행하는 지장, 수군과 백성을 챙기는 덕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산: 용의 출현’은 7월 27일 개봉한다. 박꽃 기자 pgot@

차별·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 배우다

“우리에게 타자란 무엇인가?” 질문 던져
‘사유의 힘’ 키우려면 철학적 사고 필요



받을 때는 보편적인 반인종주의를 표방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추상적인 가치에 머무는 듯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익 관계가 관건이 될 때는 서구의 배타적 대응 방식, 인종적 편견을 그대로 또는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복사해서 내면화하고, 이방인 혐오를 실현하기도 한다”고 꼬집는다.

타자(他者)는 사전적으로 자기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 철학적으로는 보통 사회적 소수자를 지칭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타자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구분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타자들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책이 출간됐다. 현재 한국프랑스철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동욱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책 ‘타자철학’을 통해 소수자 차별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 ‘타자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에게 타자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선 그는 세계적으로 보수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근본 원인을 ‘타자의 도래’로 본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비롯해 친이민정책 등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국수주의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서 교수는 “한국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불이익을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공존과 연대로 나아가는 데 왜 하필 법이나 제도가 아닌 철학이 요구되는 것일까? 서 교수는 “타자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혔을 때, 이 가로막힘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유의 힘이 그 막힌 길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 ‘사유의 힘’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길의 핵심은 ‘이 타성에 대해 사유하기’다. 타자가 타자로서 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는 일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송석주 기자 ss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든든한 나의 안전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2022년 7월 1일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산재·고용보험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 대출모집인
- 택배원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자·간선기사, 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조종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가전제품설치원
- 퀵서비스기사
- 학습지방문강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022. 7. 1.부터 산재보험 적용(예정)
* 2022. 7. 1.부터 고용보험 적용(예정)

적용방법

- 국세청 소득 자료 연계로 빈틈없고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적용대상 직종 종사자 당연적용

온라인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편리하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일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인플레이파이터 WIN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기는 전략적 투자



KB증권 KBable 인플레이파이터랩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적극적 자산배분 랩

- 인플레이션 대응**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혜 자산 발굴
- 적극적 운용**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배분 비중 조절
- 리스크 관리**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통한
투자 위험요소 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1832호(2022년 6월 3일~2023년 6월 2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 계약은 고객계좌별 운용, 관리하며 가입시점 별로 운용 수익률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는 선취 1.0%, 후취 연1.2%(분기 후취)입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 1000억 브랜드 키울 것”

조성천 휴온스 건기식사업본부 상무

개발·기획·마케팅 두루 섭렵 자타공인 ‘건기식 전문가’
“내달 ‘전립선 사군자’ 출시 남성용 시장도 휘어잡을 것”

“휴온스라는 회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제품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국내에 여성 갱년기 유산균 시장을 연 ‘메노락토’를 연 매출 1000억 원대 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조성천(사진) 휴온스 건기식사업본부 상무는 30년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획, 생산, 영업,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노하우를 쌓은 자타공인 건기식 전문가로 꼽힌다. 그런 조 상무에게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이하 메노락토)는 각 별한 자식 중 하나다.

2020년 4월 첫선을 보인 메노락토는 국내에 여성 갱년기 유산균이라는 새 시장을 열고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 약 2년 동안 누적 매출 640억 원을 달성, 히트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조 상무는 “올해는 흡소핑 방송 노출을

작년보다 40% 정도 줄였는데도 분기 매출은 오히려 40억~50억 원 이상 늘었다”면서 “제품 후가나 입소문을 통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 골고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메노락토의 성공에 힘입어 국내 건기식 시장에는 유사한 제품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메노락토는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유산균이란 점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을 무기로 우위를 점했다. 특히 흡소핑에서 판매된 제품은 반품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조 상무는 “흡소핑에서 갱년기 건기식 시장이 2000억 원까지 커졌다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불신감도 있었다”



며 “유산균 붐이 일 때 메노락토가 등장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노락토를 ‘국민 갱년기 유산균’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조 상무는 브랜드 품질을 최우선가치로 놓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지만, 냉장 유통이 필요한 메노락토의 품질을 완벽하

게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흡소핑과 자사몰 외에 새로운 유통 채널도 발굴에도 애쓰고 있다. 최근 네이 버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보다 낮은 연령대 고객들이 유입된 점에 착안,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기능·고품질의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해 콜드체인으로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규 채널 확충과 프리미엄 라인이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외형과 수익성은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상무는 메노락토의 기세를 이어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의 ‘남성 전립선 건강 유지 기능성’ 개별인정을 획득한 ‘전립선 사군자’로 여성에 이어 남성 전립선 건기식 시장도 휘어잡겠다는 포부다. 그는 “7월 전립선사군자를 출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뚝뚝한 상품 서너 개만은 키워 건기식사업본부 월매출을 100억 원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일재계회의’ 3년 만에 열린다 전경련·케이단렌 내달 4일 서울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내달 4일 일본의 기업인 단체 ‘케이단렌’(經團連)과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과 케이단렌은 1982년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이 회의를 만들었으며,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열리지 않아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개최된다.

회의 장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이며, 양국 경제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대해 2시간가량 논의하기로 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해양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 2025년 10차 회의 한국서 개최

우리나라가 2025년 해양분야 국제회의인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UN 해양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 제10차 OOC 개최 국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OC는 기후변화,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과 해양보호구역 등 인류 공동의 당면 현안을 주제로 전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들, 국제기구 대표, 기업과 글로벌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해양분야 국제회의다.

OOC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주간 상호 토의하며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공유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에게 아직은 생소한 OOC 준비 과정에서 해양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꼭 알리고 싶다”며,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해양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머스크, 트위터 팔로어 1억명 돌파 파워트리아인 6위에... 1위는 오바마

일론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가 1억 명을 넘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는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데이터 분석업체 소셜블레이드를 인용해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어가 지난 26~27일 사이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팔로어 1억 명을 넘긴 머스크는 현재 6위 ‘파워트리아인’이다. 1억3210만 명 팔로어를 거느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위이고, 팝스타 저스틴 비버(1억1410만 명), 가수 겸 배우 케이티 페리(1억880만 명), 팝가수 리한나(1억690만 명),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억130만 명)가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어는 1억10만 명으로, 호날두 계정을 추격하는 중이라고 경제매체 벤징기는 전했다. 머스크는 2009년 6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머스크는 자신이 경영하는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사업 현황,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돌발 트윗, 정치적 견해와 시사फल한 일상사 등을 올리며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이혜리 기자 hyeri@

최태원 “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상의,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세미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최 회장은 이어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 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이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이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정치가의 말을 인용하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



금,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력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사진 연합뉴스

위니아전자, ‘6·25전쟁 멕시코 참전용사 특별전’ 후원

위니아전자가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나선다.

위니아전자는 전쟁기념관과 주관 멕시코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6·25전쟁 멕시코 참전용사 기념 특별전’의 전시 기반 연구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니아전자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멕시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전에서 위니아전자는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고증을 위해 멕시코 현지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다.

6·25전쟁 멕시코 참전용사 기념 특별전은 9월 25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나는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별전은 △멕시코와 6·25전쟁 △다른 나라의 깃발 아래 △전장의 건너편’ 등의 존(Zone)으로 구성됐다. 공간별 주제에 맞는 6·25전쟁 참전용사 8명의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위니아전자가 지



‘6·25전쟁 멕시코 참전용사 기념 특별전’ 개막 테이프 커팅식. 맨 오른쪽이 서울총 위니아전자 해외사업총괄 전무. 사진제공 위니아

난해 진행한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 등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사진들도 전시된다. 강태우 기자 burning@

김봉옥 인천힘찬종합병원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취임

인천힘찬종합병원 김봉옥(사진) 병원장이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겸 서태평양지역 대표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3년간 한국·일본·호주·중국·홍콩·대만·몽고·필리핀 등 8개 회원국이 있는 서태평양지역 여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으로, 세계 여성들의 권익, 여성과 아동의 건강 및 젊은 여의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세대의과대학을 졸업한 김 부회장은 재활의학 전문의다. 2004년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를 시작으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세계여자의사회 학술위원장(2013~2016) 등을 역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송병기 기자 songbk@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대전전파관리소장 이훈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최영선

◆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 ◇본부장·실장급 △경영지원실장 윤선미 △전남지역본부장 염동일 ◇팀장급 △예산투자팀장 유지용 △클러스터성과팀장 주영철 △그린산단팀장 하민근 △산단편도사업팀장 안보광 △개발기획팀장 오희원 △전남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김원섭 〈전보〉 ◇본부장·실장급 △기획조정실장 문문철 △안전실장 심광섭 △기업지원실장 김은철 △구조고도화사업실장 안무권 △경기지역본부장 박진만 △충청지역본부장 최경용 △강원지역본부장 권오성 ◇팀장급 △정보전략팀장 이동열 △운영지원팀장

윤홍민 △스마트플랫폼팀장 임정진 △산단공간혁신팀장 안광혁 △계양사업단장 신중욱 △인천지역본부 산단혁신팀장 최충혁 △ 입주지원팀장 심상원 △ 기업성장지원팀장 양현순 △ 주안부평지사장 김영중 △경기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유형진 △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김경오 △ 기업성장지원팀장 성현찬 △광주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장 최규연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윤영수 △ 기업성장지원팀장 이강수 △ 스마트그린산단팀장 장광호 △김해지사장 안충용 △충청지역본부 산단혁신팀장 정재일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임용 △서울광역시본부장 고광재 △부산지역본부장 공흥두 ◇실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오규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김진현 △서울광역시본부 교육센터장

김창호 △ 건설안전시스템담당 박영진 △대전세종광역본부장 김태호 △울산지역본부장 전상현 △경기지역본부장 홍순의 △경기지역본부 광역사고조사센터장 양승혁 △강원지역본부장 양승수 △경북지역본부장 이상범 △경남지역본부장 안원환 △제주지역본부장 이준연 △경기북부지사장 이동규 △충북북부지사장 권진영 △전남동부지사장 김승환 △경남동부지사장 김영미

◆코스콤 〈신규 선임〉 ◇임원 △상무 고재술 △상무 홍동표 ◇본부장 △경영전략본부 김도연 △경영지원본부 정남섭 △금융사업본부 이종기 〈전보〉 ◇본부장 △데이터사업본부 황선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정동욱 △테크놀로지센터 김성현 ◆한국마사회 ◇본부장 △제주지역본부장 홍용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전보 △건축연구본부장 송태협 △총무복지실장 박재광

◆삼정KPMG ◇부대표 △강정구 △김경미 △김진원 △박성배 △이성태 △조재박 △전무 △강성채 △강인혜 △김일훈 △계봉성 △김영문 △나석환 △류용현 △봉찬식 △신동준 △안창범 △원정준 △정우철 △조영환 △최이현

◆CBS △보도국 부국장(디지털 담당) 겸 디지털콘텐츠제작부장 도성해 △기술국 기술기획관리부장 최영학 △ 수출기술부장 주창권 △ 정보네트워크부장 김상철 △ 기술기획관리부 인프라팀장 나경록 △감사법무실 감사팀장 하덕형 △경영본부 인재경영부 인사팀장 서유미

◆인베스트조선 ◇취재본부 △기업금융부 부장대우 이도현 이재영

부음

▲임영식 씨 별세, 임성문(대전지방변호사회장) 씨 부친상 = 29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7월 1일 오전 7시 30분, 042-280-8181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재배구조연구소장

ESG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 투입이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기업이 투자한 '주주에 대한 최선의 노력과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존속이 가능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므로 ESG적이지 않다. 기업과 사회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SG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실무적으로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회사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은 업태별로 또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기업의 세부 'ESG 위험&기회 프로파일'을 예로 들어 보자. CJ제일제당은 '기후변화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규제와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비즈니스의 전체 과정에서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 등이 본격화함에 따라, ESG 위험과 기회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할 경우 자칫 중요한 사업 기회 상실이나 손실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저탄소 제품 제공 솔루션'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위험과 기회 '영향도와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영 관리 체계 구축 시 무엇보다 유무형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즉 ① 미국과 독일 등 자사 제품들이 진출한 시장에서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해외 진출과 사업 영위 시 반드시 탄소 비용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비해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가치 사슬에 탄소 감축 목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 '공급망 단계별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공급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지역이 물 부족 국가라면, 용수 사용 시 지역 사회의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악명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상 플라스틱 용기 사용으로 생태계 파괴 위험은 어디서나 비판 제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③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용수 절감 및 진단 프로세스' 도입 및 '폐기물 자원 재활용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단어가 의미하듯 변화(Change)는 속성상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행운의 가능성(Chance)도 활짝 열어준다. 비즈니스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다. 환경과 건강이 중요해지고 '가치 소비'가 급부상함에 따라, 같은 식품이라도 친환경 원료와 용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즉, 제품의 원료,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친환경 순환경제'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다면, 회사는 신규 수익원 확보와 동시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사업으로 축적된 '미생물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천연원료를 활용한 '생분해성 플

라스틱'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바로, 석유화학물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ESG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 투입이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 투자한 '주주에 대한 최선의 노력과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존속이 가능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므로 ESG적이지 않다. 기업과 사회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SG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기회 요인의 세부 사항들을 보면 검토 관리해야 할 항목들을 대략 알 수 있다. 정부 정책과 인센티브(정책),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한 매출 기회(트렌드 및 시장 규모), 시장 선점 효과(경쟁), 이를 위한 환경기술 개발 전략 및 R&D 비용(기술), 사내 및 사외 역량 확보 방안(유기적 성장 vs M&A) 확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ESG 과제와 실천이 내재화되고, 세부 실행과제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KPI가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ESG 기회 관련 점검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CJ제일제당으로 돌아가 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분야 '22년도 R&D 예산 전년 대비 15.7% 증액된 2734억 원 지원 계획을 밝히고, '보건 의료'의 레드 바이오에 모험 자본을, '식량 자원'의 그린 바이오와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에너지 화학'의 화이트 바이오에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 추진을 천명했다(정책). OECD 바이오 보고서에 의하면, 화이트 바이오 시장은 총부가가치 비중이 레드, 그린 바이오를 제치고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특히 글로벌 생분해 시장의 경우 5년 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트렌드 및 시장 규모). 현재 플라스틱이 13%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는 현실에서(ESG 기회), 회사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 기업만 생산하는 PHA 해양 생분해 소재에 진출하여 선점하기로 했다(경쟁). 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축적된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기술), HDC현대PE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유기적 성장 vs. M&A). 이처럼 ESG의 활용은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될 때 지속 가능한 실천이 가능하고, 재무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담보할 수 있다.

과학 놀이터



이난영
과학칼럼니스트

늦은 오후 바닷가를 걷는다. '짜아' 소리를 내는 파도가 연신 밀려온다. 파도 소리에 더위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 이 시원한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해답은 물거품을 이루고 있는 공기 방울에 있다. 공기 방울은 파도가 요동칠 때도 형성되지만, 바다에 빗방울이 부딪히거나 낚은 사위기 헤드에서 물이 똑똑 떨어질 때도 만들어진다. 공기 방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파도 소리나 물 떨어지는 소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다에 빗물이 떨어지는 걸 예로 들어 공기 방울의 형성 과정부터 살펴보자. 우선 빗방울이 바닷물의 표면에 부딪힌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자마자 물방울이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유는 표면장력(surface tension)이라 불리는 강한 인

력 때문이다. 이는 액체 표면을 최대한 작게 하려는 힘의 성질을 나타낸다. 표면장력은 일상에서 쉽게 관찰된다. 일례로 물이 찰랑찰랑하게 들어있는 컵에 클립을 하나 둘 넣어도 표면이 아주 납작한 계란 노른자 모양으로 부풀어 오를 뿐 생각처럼 쉽게 넘치지는 않는데, 원인은 표면장력이다.

이 장력이 작용하는 바다 표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건 신축성이 있는 팽팽한 천 위에서 하는 도약운동과 유사하다. 발바닥이 천을 누르면 그곳이 아래로 조금 패이듯이 빗물이 닿은 수표면은 잠시 아래로 처진다. 물방울이 물속으로 뚫고 내려가는 건 바닷물의 표면이 원상대로 회복되고 나서다. 물방울이 통과하며 생긴 구멍은 바깥 공기로 채워지는데, 이 공기가 다 빠져 나가지 전에 구멍 입구가 재빨리 닫히면서 공기 방울이 생긴다.

물속 수포는 숨을 쉬는 것처럼 '커졌다

파도소리의 비밀

작아졌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소리를 만든다. 진동수(f, frequency)는 이런 되풀이 운동이 주어진 시간 내 몇 번이나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값으로 f가 작으면 낮은 소리가, 크면 높은 소리가 들린다. 한 개의 공기 방울은 하나의 특정 진동수를 만드는데, 그 값은 공기 방울의 크기와 역비례 관계에 있다. 즉 방울 직경이 클수록 진동수는 작아져 알토나 베이스처럼 낮은 소리를 내고, 반대로 작을수록 f는 커져 소프라노나 바리톤 같은 높은 소리를 낸다.

소리가 사람 귀에 들릴 정도가 되려면 수포 반경이 최소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 정도는 되어야 하고, 또 물방울이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한다. 낚은 사위기 머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러 샤워기를 욕조 바닥에 내려놓는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다.

공기 방울이 한 개일 때와는 달리 공기 방울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진동들이 서로 영향을 줘서 진동수를 낮춘다. 가령 공기 방울이 하나일 때 진동수를 100이라 하면 두 개의 공기 방울이 서로 근접해 만들어질 경우 결합 진동수는 70에 불과하다. 결국 공기 방울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질수록 그들 간의 결합 진동수는 한층 더 낮아진다. 수포가 대규모 집단으로 발생하는 큰 파도가 낮고 무거운 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분이 처지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파도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진다고 한다. 이유는 파도가 내는 주파수 f의 특성이 대규모의 치료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뇌파인 델타파와 유사하기 때문이라 한다. 파도 소리는 생성 과정이나 효과 그 어느 쪽으로 봐도 놀랍고 신기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정약전(丁若鏞) 명언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하지 않는 자산(岫山)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조선조 학자. 천주교에 입교한 뒤 벼슬에서 물러나 포교에 전념했다. 신유박해(辛酉迫害)로 흑산도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유배지에서 한국 최초의 어류생태서 '자산어보(岫山魚譜)'를 쓴 그가 창대에게 남긴 편지에 나오는 말. 그는 오늘날 숨을 거두었다. 1758-1816.

☆ 고사성어 / 존양성찰(存養省察)
양심을 보존하고 나쁜 마음을 물리친다는 말. 맹자(孟子) 진심장(盡心章)에 나온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일이 된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南宋)의 주희(朱熹, 1130-1200)는 이를 줄여 '존양(存養)'으로 표현하고, 수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했다. 존양은 마음의 정(靜)할 때 마음의 본체를 잘 간직하여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것이고, 성찰은 마음이 동(動)할 때 인욕(人欲)이 있었는지를 반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시사상식/좌초자산(stranded asset)
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석탄산업이 좌초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에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예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부과를 권고했다.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가 붙으면 석탄 에너지 발전 비용은 올라간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등신(等身)
'사람의 모양대로 만든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로 쫓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문수빈 / 자본시장1부

"-38%? 그 정도면 귀엽지." 3000포인트(P)를 노렸던 코스피가 2300P까지 떨어지자 최근 지인들과의 인사가 바뀌었다. '안녕' 대신 '수익률'을 묻는다. 만날 때마다 누가 더 많이 잃었는지 불행 올림픽이 열린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며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증시, 외부 탓만 할 수 있나

'복합 위기'다. 증권사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올해 들어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는 6개월 새 7만전자와 6만전자의 수식을 반납하고 5만전자로 내려왔다. 주가 추이를 보면 4만전자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2, 3번째로 많이 매수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52주 최고가(46만5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카카오는 52주 최고가(16만5500원)의 1/3 수준이다. 바닥을 모르는 추락에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손절하기 시

작했다. 이달 들어 두 종목은 순매수 순위가 밀려 각각 15위, 8위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투자자의 눈은 기업에 쏠린다. 자사주 매입을 기대하면서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2조21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108억 원)보다 늘었다. 하지만 투자자가 안심할 순 없다. 자사주 취득이 주가 부양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이를 소각해야 주주가

치가 제고되는데 우리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산 뒤 기간을 두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스피 상장사의 총 자사주 취득 예정 주식 수는 2억8000만 주이고, 처분한 주식 수는 1억6000만 주이다.

오늘날 투자자들의 결정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사주 매입' 공시도 우리나라에선 결코 호재가 아닌 이유에서다.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파장을 다방면으로 예상하고 투자해야 한다. 자사주를 비롯해 핵심 부서의 물적분할 후 상장 등과 같은 기업들의 꼼수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을 닫게 할 뿐이다. bean@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여름의 초입에서

여름의 초입입니다.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마르고, 땀방울이 농작물이 타들어간다고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유독 산불이 잦고 오랜 숲들이 화마에 집어삼키는 장면들이 뉴스 화면에 나올 때마다 탄식이 터져왔습니다. 야속하게도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메마른 땅을 적시고 저수지의 수량을 채웠습니다. 비 그친 저녁엔 개구리와 맹꽁이들이 가까운 데서 울어댔습니다. 습지가 없는 주택가인데 어딘가에 개구리와 맹꽁이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 있었나 봅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초저녁 잠에 들고 난 뒤, 저 습지에 숨어서 울어대는 개구리와 맹꽁이의 소리에 오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름은 어느덧 우리 곁에서 번성입니다. 집 건너편의 녹색 숲은 바람이 불면 군무를 추듯 울동을 보여줍니다. 저 꿈틀대는 녹색 짐승들! 그건 참을 수 없는 녹색의 희열이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며칠 전 에어컨 기사가 들러 집 안의 에어컨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냉매가스를 충전했습니다. 울여름엔 계면활성제가 든 생활용품 사용을 줄이고, 호밀빵이나 씹으며 한가롭게 파블루 네루다 시집 '100편의 사랑 소네트'를 읽고, 그다음엔 숲속 그늘을 찾아다니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나 읽으며 보낼까 했습니다. 여름의 향기에 취해 숲이 만든 그늘들과 물의 고요를 오래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난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름의 초입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 두 권이 새로 출간되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100대 정원 중 하나로 뽑힌 대관령의 살바토레에서 강연을 하고, 생후 두 달 된 아기고양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뜻밖의 병으로 여러 날 누워 지냈습니다. 고양이 온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견 실로 대단한 사건, 멀리서 온 기적! 아기고양이는 생명의 약동 그 자체입니다. 이 작고 놀라운 존재는 한순간도 멈춤 없이 에너지를 방출해 내는데 경이롭기조차 합니다.

저는 며칠 앓아누웠는데, 대단한 병은 아니고 갑자기 찾아온 근육통, 두통, 고열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었는데 쉬이 낫지 않고, 밤에는 이불이 축축해질 정도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평소 건강한 체질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꽤 오래 고열이 지속되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이란 외부의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일어난 소동이거나 생명의 동적 평형이 어긋나고 깨진 상태입니다. 아파 보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살아 있다는 게, 당연하게 누리던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지금도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병상에 누워 병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병을 떨치고 일어나 사는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약동과 희열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도 알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읽은 박희진 시인의 '회복기'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조지훈의 '병에게', 운동주의 '병원'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어머니 눈부세요./마치 금싸라기의 흉수 사태군요./장을 도로 절반은 가리시고 /그 싱싱한 담쟁이냉쿨잎 하나만 따주세요.” 금싸라기 흉수 사태라는 햇빛 이미지는 질병의 어두운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선명하게 빛납니다. 삶은 본디 순진무구한 녹색의 불길입니다. 시인은 이런 삶의 본래성에 눈길을 돌려 병의 어둠을 고찰하고, 병의 속성을 끄집어냅니다. 뭐, 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나름의 핵심을 짚는 것입니다. “병이란 삶 안에 쌓이고 쌓인 독이 터지는 것./다시는 독이 깃들지 못하게./나의 삶은 타는 불길이어야 하고./나의 피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열의 노래가 되어야죠.” 마침내 병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온 어린 환자는 ‘어머니’라는 큰

여름은 바다의 소금을 단단하게 해서 수확의 때를 준비하고, 모든 노래에 멜랑콜리를 충전시키며, 땅에서는 어린 포도알을 무르익게 하고 비의 나무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온갖 과일들이 밝은 빛 아래 단맛을 배게 할 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와 함께 흐르며 불타는 별들이 봉봉거리는 여름! 단 한 번의 여름! 여름은 저 멀리에서 와서 영원의 중심을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존재를 불러들여 제 생을 의탁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열일곱 살 소년의 실제 어머니이자 동시에 무한히 부드러운 약손을 가진 근원 존재, 모든 생명을 낳고 기른 대지모신입니다. “어머니, 나도 살고 싶습니다./나는 아직 한 번도 꽃 피어 본 적이 없는 걸요./저 들이보는 금싸라기를 만발한 알몸으론/받아 본 일이 없는 이 몸은 꽃봉오리./하마터면 영영 시들 뻔하였던 /이 열일곱 어지러운 꽃봉오리/속을 맴도는 아픔과 그리움을/어머니, 당신 말고 누가 알겠어요./마지막 남은 미열이 가시도록/이 좁은 이마 위에/당신의 큰 손을 얹어주세요./죽음을 쫓는 손,/그 무한히 부드러운 약손을.” 이 시는 병의 깊고 어두운 협곡에서 빠져나온 눈부신 생의 세계로 살아 돌아온 어린 환자의 생명 찬가이자 동시에 병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은 노래입니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해지곤 했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영양분이 듬뿍 담긴 음식처럼 풍성한 사유를

끌어내는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겨우 열일곱 살입니다. 아직 제대로 꽃봉오리를 활짝 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아픔니다. 하마터면 생과 이별할 뻔했습니다. “병이란 삶 안에 쌓이고 쌓인 독이 터지는 것!” 그 병을 견디고 이제 회복기로 들어서며 사람들이 금싸라기 햇빛을 받으며 신나게 웃고 떠드는 소리, 활보하는 소리에 들뜬 기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머니, 나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은 얼마나 간절하고 순정한가요? 여름의 녹색 불길 그 자체인 나무처럼 건강하고 싶다는 소년의 간구, 삶의 환희에 대한 갈망으로 들쭉이는 기운이 불현듯 내 소년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병에 대한 기억에 대해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약에 취해 잠들던 그 낮과 밤들을 잊을 수가 없다. 질병은 신체의 함량미달, 상귀에서 벗어남, 취약점들의 우연한 노출이다. 나는 자주 의기소침해지고 비관주의에 빠지곤 했지만 병이 항상 최악의 것만은 아니다. 식구들이 다 나가고 빈집엔 고요가 끊어 넘치는데, 공중에서는 제비가 날고 환한 햇빛이 넘치는 마당엔 모란과 작약이 꽃을 피우고 서 있다. 나는 깨끗한 이불을 덮고 혼자 누워 있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의 정밀이 손에 만져질 듯 지금도 생생하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차가운 손으로 고적하게 한 나정을 건넨 내 뜨거운 이마를 짚을 때 나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안도하곤 했다. 가벼운 병들은 어떤 몰아결의 체험이고, 병을 떨치고 일어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부쩍 자라 있곤 했다.”

따지고 보면 병은 우리 삶의 불가피한 일부입니다.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 잊고 있던 몸을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병이란 대체로 쓸쓸하고 고독하게 찾아와 우리 몸을 통렬하게 깨우는 것! 병은 통렬한 방식으로 몸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지나는 삶의 여정을 찬찬히 돌아보게 합니다. 병은 오랜 영혼으로 가는 고요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병이 삶의 나쁜 방식이나 도덕적 나태에 내리는 징벌은 아니지만, ‘과연 나는 잘 살아왔는가?’라는 물음과의 마주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은 바다의 소금을 단단하게 해서 수확의 때를 준비하고, 모든 노래에 멜랑콜리를 충전시키며, 땅에서는 어린 포도알을 무르익게 하고 비의 나무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온갖 과일들이 밝은 빛 아래 단맛을 배게 할 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와 함께 흐르며 불타는 별들이 봉봉거리는 여름! 단 한 번의 여름! 여름은 저 멀리에서 와서 영원의 중심을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 여름이 이룩하는 눈부신 기적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여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름이 빛날 때 내 여름 또한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초입에 맞은 내 병과 여름의 경도(徑道) 사이에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내 생의 의례로서 병을 섭섭지 않게 맞고 떠나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강렬하고 찬연한 여름을 품었다가 전변하겠습니다.

시설

물가 공포에 얼어붙는 소비심리, 경제고통 커진다

국내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심리 또한 급속히 가라앉았다.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금액 부담이 급증해 교역조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와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다. 한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9%로 5월(3.3%)보다 0.6%포인트(p) 뛰었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고, 상승폭은 2008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다. 올해 들어 계속 물가가 치솟아 5월 5.4%에 이어 6월 상승률은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는데,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큰 폭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4로 5월(102.6)보다 6.2p 떨어져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CCSI가 100 아래인 것은 장기평균(2003~2021년)보다 비관적인 소비심리를 나타낸다. 현재생활형편과 전망, 현재경기판단 및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의 지수가 모두 뒷걸음쳤고, 특히 향후경기전망(84→69)과 현재경기판단(74→60)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자들의 6월 물가전망지수가 163으로 5월(157)보다 6p 높아

진 가운데, 주택가격전망지수의 경우 98로 5월(111)에 비해 13p 떨어졌다. 잇따른 기준금리 상승과 주택거래 부진으로 집값이 하향할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물가가 오를 요인만 가득하다. 수입금액 급증이 가장 큰 부담이다. 5월 수입금액지수는 176.50(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32%나 상승했다. 광산품 상승률이 75.7%, 1차 금속 42.1%, 석탄 및 석유제품은 40.6%였다. 반면 수출금액지수(146.81)는 전년 동기 대비 19.9%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입가격은 뛰는데 수출가격 상승이 따르지 못하면서 교역조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쌓여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

인플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추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인상 압력을 키우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를 자극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그런 국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체를 요청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 무슨 소리냐는 직장인들의 반발도 크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고,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과 과 현재경기판단(74→60)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자들의 6월 물가전망지수가 163으로 5월(157)보다 6p 높아

그 역에 가고 싶다 남이섬·자라섬 가는 길목 '가평역'

가평역은 1939년 경춘선이 개통하며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오랫동안 청춘들의 MT 1번지로 역할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57년 삼각 박공지붕의 아담한 역사를 거쳐 1997년 신축된 옛 가평역은 푸른색 지붕과 연결된 V자 기둥이 인상적인 현대식 건물이었다. 가평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며 역사도 꾸준히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화로 기존 대곡리에 있던 가평역이 달전리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자라섬 등 관광지도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이런 관광역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맑은 호수의 물빛을 닮은 유리 외벽의 현대식 역사로 재탄생하였으며, 부기 역명으로 자라섬과 남이섬을 사 용하기도 하였다.



경춘선 옛 구간이 지났던 폐선부지. 사람도 열차도 떠나고, 역사도 철거되었지만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 기적 소리가 메우던 옛 역사 공간을 채워가는 음악 소리. 2018년, 옛 가평역이 '음악역 1939'로 돌아온 것이다. 통기타를 들고 자유로운 노래했던 청춘의 역사. 옛 가평역. '음악역 1939'는 1939년 개통했던 옛 가평역의 역사성에, 가평군이 국내 최초 음악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을 더해 탄생한 것으로 방문객들이 크고 작은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

간이자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과 공연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조망을 자랑하던 옛 경춘선 포토존 가평철교는 인도교로 탈바꿈하였으며, 폐선 옆에 시장도 '가평맛고'를 1923'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지, 남이섬(사진)과 자라섬을 골라갈 수 있는 갈림길. 남이섬은 1960년대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어 다양한 놀이시설과 숙박시설, 동물원 등이 있는 종합휴양시설로 성장하였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이섬은 특히 2002년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소이다. 상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

다는 의미의 '나미나라 공화국'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기도 한다.

가평역과 가까운 자라섬은 북한강이 가평 초입에 이르러 속도를 늦추면서 만든 반달 모양의 섬으로, 자라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자라섬이라 불리게 되었다. 해방 이후 중국인 몇 명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하여 과거에는 중국섬이라고도 불렸다고도 한다. 비가 내리면 섬 일부가 물에 잠기는 곳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다가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의 장이자 가평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되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오직 엘지 #인정 엘지

지금 LG가전을 더 큰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LG전자 시원한 여름 대축제

LG전자 가전제품 동시 구매 혜택 [2022.06.01~2022.06.30]

혜택1] LG전자 가전 동시 구매 시, 최대 320만 혜택
 혜택2] LG오브제컬렉션 리빙/키친/에어 패키지 동시 구매 시, 최대 30만 혜택
 ※ 본 행사는 LG전자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에 한하며, 동시 구매 적용 모델,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매장 판매사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LG전자 가전제품 구매 시 경품 추첨 이벤트 [2022.06.03~2022.08.31]

이벤트 기간 내 LG전자 매장(베스트샵, 백화점)에서 LG워센 에어컨 포함 500만원 이상 구매하고
 LG전자 멤버십 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하여 다양한 경품 증정
 ※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첨 고객 본인 부담이며, 본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멤버십 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